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박 대 식	연 구 위 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김 강 호	위 축 연 구 원
류 성 희	인 턴 연 구 원

## 연구 담당

박대식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2절, 제5장 ~제6장 집필
마상진	연구위원	제2장~제3장, 제4장 1절 집필
김강호	위촉연구원	제4장 2절 집필
류성희	인턴연구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박 대 식

연 구 원: 마 상 진

김 강 호

류 성 희



## 머 리 말

---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고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 동안 먼 훗날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100세 시대가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크게 부족하다.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 의식은 80세 시대에 머물고 있다. 연금,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취업, 정년제도, 그리고 개인의 재무 설계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어업인 단체, 국민연금공단,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대행해 준 <리서치 앤 리서치>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촌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요 약

---

### 연구의 배경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②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④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방안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농어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관련 기관의 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였다.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관련 기존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등의 관련 자료를 정리 또는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4개 농어촌 유형(대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산간농촌, 어촌)별로 각 각 125명씩 총 500명의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 및 대비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어촌주민의 1/3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49.2%,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21.0%로 나타나 농어촌주민

들의 70.2%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월 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개인은 96만 6천원, 부부는 174만 6천원이고, 월 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은 145만원, 부부는 248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련 중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은 보험(70.2%), ‘계속 일을 함’(64.6%), 저축(63.8%), 공적 연금(50.0%) 순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은 저축(78.0%), ‘계속 일을 함’(70.0%), ‘보험’(63.8%), ‘공적 연금’(54.4%), ‘개인연금’(50.2%) 순이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하는 정책과제(1순위 및 2순위 합계)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74.2%),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49.6%),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32.2%) 순이었다.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의 기본방향은 ① 생산적·참여적 복지 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② 연령통합 및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③ 생애주기별 특성화 및 세대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개선방안은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소득 및 소비, 일자리,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육 및 교육, 주거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도입, ③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소득 및 소비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과 농지연금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고령친화 농업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제시하였다. 여가 및 문화 활동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농어촌 노인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보육 및 교육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의 확대와 노후생활 설계 교육을 강조하였다. 주거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 홈 사업의 활성화와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 ABSTRACT

###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nd Rural Confrontation Plan

####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ovision situation for 100 years-old time of rural residents, 2)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3)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4) to suggest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 **Method of Research**

Research methods includ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re-analysis of previous data, field survey, analysis of foreign cases, and so on.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500 rural resident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were classified into 7 fields: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come and consumption, job,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child-care and education, and housing.

In the aspec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construction of regular resident health control system, 2) introduction of special health checkup system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3) reinforcement of meal service and nutrition improvement programs.

In the aspect of income and consumption,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improvement of national pension system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2) improvement of farmland pension.

In the aspect of job,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support of the elderly-friendly farming, and 2) rearing of rural community business.

In the aspect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management activation of rural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2) reinforcement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rural schools.

In the aspect of child-care and education,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expansion of rural experienc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2) life design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the aspect of housing, rural policy tasks to confront the arrival of 100 years-old time are as follows: 1) nationwide expansion of group home tasks utilizing the elderly hall, village hall, and so on, and 2) systematization of 'back-to-earth' support.

Researchers: Dae-Shik Park, Sang-Jin Ma, Kang-Ho Kim, Seung-He Rhu

Research Period : 2011. 9 ~ 2011. 12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방법 ..... 9

### 제2장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1. 100세 시대 농어촌의 모습 ..... 11
2.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 15

### 제3장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22
2.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 24
3. 노후생활 준비 ..... 26
4.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 28
5. 소득 및 소비 ..... 31
6. 일자리 ..... 36
7. 여가 및 문화 활동 ..... 38
8. 기타 ..... 41
9. 소결 ..... 43

### 제4장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

1.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우리나라 농어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5
2.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국내외의 농어촌부문 모범사례 ..... 54

3. 소결 .....	66
<b>제5장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b>	
1. 기본방향 .....	69
2. 정책 개선방안 .....	71
<b>제6장 요약 및 결론</b>	
1. 요약 .....	87
2. 결론 .....	102
부록 1.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설문조사표 .....	104
부록 2. 연령대 및 직업별 농어촌주민 설문조사 결과 .....	118
참고 문헌 .....	148

## 표 차례

---

### 제2장

표 2-1.	100세 시대의 농어촌인구 전망 .....	12
표 2-2.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망 .....	13
표 2-3.	농촌(읍·면부)의 생활편의시설 보급의 추이와 전망 .....	14
표 2-4.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	17
표 2-5.	고령화 영향 시나리오 .....	18
표 2-6.	고령화에 대한 주체별 대응 방향 .....	18
표 2-7.	농촌관광 수요의 추이와 전망(2005~2030) .....	20

### 제3장

표 3-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23
--------	-----------------------------	----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 1. 연령별 농업인구 비중 변화 전망 .....	13
----------------------------------	----

### 제3장

그림 3- 1.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24
그림 3- 2.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25
그림 3- 3.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25
그림 3- 4.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	26
그림 3- 5.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	26
그림 3- 6.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27
그림 3- 7.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28
그림 3- 8.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	28
그림 3- 9.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	29
그림 3-10. 평소 운동 빈도 .....	30
그림 3-11. 노후 건강 악화 시 대처 방안 .....	30
그림 3-12. 건강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31
그림 3-13. 월 평균 노후생활비 .....	32
그림 3-14. 현재 마련 중인 노후 경제적 대책 .....	32
그림 3-15. 앞으로 강화 희망 노후 경제적 대책 .....	33
그림 3-16.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	33
그림 3-17. 농지연금 인지 정도 .....	34
그림 3-18.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	35
그림 3-19.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	35
그림 3-20.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36

그림 3-21.	노후 노동 희망 여부 .....	37
그림 3-22.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	37
그림 3-23.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38
그림 3-24.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	38
그림 3-25.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	39
그림 3-26.	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	40
그림 3-27.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40
그림 3-28.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	41
그림 3-29.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	42
그림 3-30.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42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임.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임.
  - 그 동안 먼 훗날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나타남.
- 100세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70~8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인

생 역정에서 유망 업종과 직업이 몇 차례 달라질 것임.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유망 업종 및 직업의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함.

- 인생 100세 시대가 점점 더 우리들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에 가까울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는 90~100세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답했음.
  -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아직 건강하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30~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함.
- 그러나 이렇게 100세 시대가 도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아직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80세 시대에 머물고 있음. 연금,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그리고 개인의 재무설계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같은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평균수명을 80세인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래하는 100세 시대에는 수정이 불가피 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는 65세 이상 노령농업인들을 가급적 영농에서 은퇴시키고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100세 시대에는 ‘생산적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음.

-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수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임.
-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②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방안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임.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2.1.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

- 이견직 외(2005)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시장규모: 2002년 현재 약 6.4조원인 고령친화산업은 활성화 전략 시행 시 2010년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전략품목: 요양산업(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한방의료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시스템), 정보산업(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 여가산업(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항노화

한방기능성식품, 한방보건관광,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전원형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고령친화귀농교육, 은퇴농장)

- 주요 추진 전략: ①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의 공동입법 추진 및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 설치·운영, ② 부문별 행동계획 마련,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05년 상반기), ③ 관련 R&D 예산의 지원체계 정비 및 산·학·연 합동연구체계 구축, ④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김휴종 외(2005)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향후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감성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 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래 사회의 문화 환경 변화를 동적문화, ‘레인보우’문화, 산업으로서의 문화로 압축함. 동적문화는 참여적 공동체문화, 수평적·개방적 문화, 사이버문화, 글로벌문화 등의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임. ‘레인보우’문화는 연령별, 세대별, 영역별 문화적 다양성의 발현을 압축한 개념임. 산업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 부각, e-factors의 파급 등을 압축한 개념임.

○ 신윤정 외(2009)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고령화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 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② 요양보호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임. ③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소득창

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하였음.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며,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 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육정책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국리서치(2010)는 일반 국민 2,003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①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②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며, 위기로 인식하여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③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④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비 정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노후관 및 노후 준비: ① 노후 세대 부양에 관해 젊은 세대의 책임이 없다는 인식과 노후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과거에 비해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음. ②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건강 문제임. ③ 대다수가 향후 중요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응답함.
  
- 이삼식 외(2010)는 지난 5년(2006~2010) 동안 추진하였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향후 5년간 수행하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5년 동안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의 3개 부문에서 2006년 204개 과제, 2007년 222개 과제, 2008년 220개 과제, 2009년 216개 과제, 2010년 197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예산은 5년 동안 총 42.2조원으로 2006년 4.5조원, 2007년 5.9조원, 2008년 9.5조원, 2009년 11.0조원, 2010년 12.4조원을 투입하였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된 성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 정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사회공감대 형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의 기초를 완성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정책내용 면에서 충실함이 부족하여 진정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의미 확보에 미진했다고 평가함.
  -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는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설정함.
- 최성재(2011)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함: ① 분명한 정책 패러다임의 결여, ② 종합적 시각의 부족, ③ 장기적 시각 부족, ④ 정책 수행기구의 부적합, ⑤ 생애 과정적 접근 부족, ⑥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정책 연구 및 평가 관점 부족, ⑦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화 노력 부족, ⑧ 재원 확보 방안 미흡, ⑨ 정책에 대한 상향식 의견 수렴 부족

## 2.2.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

- 손유미(2011)는 공공부문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와 전망과 관련하여 정

책 제언으로 ①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②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③ 정년연장, ④ 다양한 일자리 경로의 발굴과 전파, ⑤ 사회공헌형 일자리 관련 법제화 추진, ⑥ 베이비붐 지원 재단(가칭 라이프 재단)의 설립을 제시하였음.

- 이철선(2011)은 베이비붐 세대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응과제로 ① 콘트롤 센터 구축 및 유형별 전략실행, ② 정년연장, 시간제 등의 제도 보완, ③ 생애주기, 효율성, 공존사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윤석명 외(2011)는 베이비부머의 특징 및 현황,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과급효과, 베이비붐 세대 인적자원관리와 직업능력개발,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중고령 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법 개정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정책개발 방향으로는 ① 힘들고 우울한 베이비붐 세대의 이미지를 신나고,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로 전환, ②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유의 특성변화와 이러한 요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 마련, ③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 예상되는 영향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인력 재활용방안 제시, ④ 소비주체로서의 베이비붐 세대의 니즈와 시장 수용 패턴을 고려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음.
- 정경희 외(2011)는 베이비 붐 세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음.
  -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영역 중 전화조사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 남녀 2,25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함.
  - 응답자의 82.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41.0%는 노후에 주택을 축소할 의사를 갖고 있음.

- 응답자 본인의 공적연금가입율은 69.7%, 퇴직연금가입율은 17.7%, 개인연금가입율은 43.6%로 나타남. 21.3%가 퇴직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7.3%가 노후소득을 위해 장기저축, 주식투자,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하면 베이비부머의 75% 정도가 공적 연금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함.

### 2.3.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연구

- 이소정(2011)은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① 노인 일자리사업 이원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통합·연계, ② 사회공헌 활동 기금 조성 및 고령자 전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③ 체계적인 노후설계를 통해 퇴직 후 사회참여 활동의 연속성 담보, ④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노인 결사체에 대한 지원 필요, ⑤ 실버 동아리(동호회) 조직화 및 지원을 제시하였음.
- 박상철(2011)은 백세인 연구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적 장수라고 봄. 기능적 장수란 단순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장수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생체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기능적 장수사회의 조건: ① 안전보장, ② 문화의 충족, ③ 생산성 시스템 개발
  - 기능적 장수사회 추진 방안을 개인의 과제, 지역사회의 과제, 기업의 과제, 국가의 과제로 나누어 정리함.
  - 기능적 장수사회 추진을 위한 국가의 과제: ①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어야 함. ② 새로운 장수과학의 육성이 필요함. ③ 정년이 없는 사회 구축, ④ 새로운 시민운동



- 박명호(2011)는 2020년까지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노력: ① 돈 중심의 은퇴 준비에서 벗어나기, ② 눈높이 한 단계 낮추기
  - 활기찬 저비용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①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비 부담 경감(정부), ② 서민 중산층 노후준비 능력 강화(정부와 기업), ③ 한국형 행복한 은퇴생활 모델 개발(지역사회)
  
- 전홍택 외(2011)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연구한 100세 시대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임. 제1부에서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의 도래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제2부에서는 100세 시대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후 소득, 보건의료 및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노년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음.
  
- 농어촌에 초점을 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음.
  - 본 연구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방안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음.

### 3. 연구방법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100세 시대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통계청 등의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재분석
- 농어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 4개 농어촌 유형(대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산간농촌, 어촌)별로 각각 125명 씩 총 500명의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 및 대비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 전국의 농어촌 지역(읍·면) 거주 국민
표 본 수	▪ 총 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pm 4.4\%$ Point
표본 추출	▪ 지역 유형별, 권역별 할당 추출
조사 방법	▪ 개별면접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실사 일정	▪ 2011년 10월 25일 ~ 11월 15일
조사 대행	▪ 리서치 앤 리서치

- 전문가 의견 수렴
  - 100세 시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전문가,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 농어촌주민,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제 2 장

---

###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 1. 100세 시대 농어촌의 모습

- 농어촌인구는 2005년에 약 876만 명, 2010년 818만 명, 2020년 685만 명, 2030년 586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표 2-1 참조).
  - 2005~2030년 기간 동안에 0~14세는 연평균 4.9% 감소, 15~64세는 2.9% 감소, 65세 이상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는 2005년에 18.2%였으나 2030년에는 12.0%로 연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촌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5년 18.5%에서 2020년 27.2%, 2030년 37.1%로 증가할 전망이다.
- 총부양비는 연평균 2.3% 증가하여 2005년 55.7에서 2030년 98.0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 26.8에서 연평균 2.0% 감소하

여 2020년 15.0, 2030년 16.0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노년부양비는 2005년 29.0에서 연평균 4.2% 증가하여 2020년 45.2, 2030년 81.9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노령화지수는 2005년 108.2에서 2020년 301.9, 2030년 511.9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1. 100세 시대의 농어촌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 분	2005	2010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5	'20/'10	'30/'20	
인구(A)	48,138	48,875	49,326	48,635	0.3	0.1	-0.1	
농어촌인구(B)	8,764	8,177	6,847	5,860	-1.4	-1.8	-1.5	
0~14세(C)	1,495	1,138	617	425	-5.3	-5.9	-3.7	
15~64세(D)	5,590	5,206	4,125	2,654	-1.4	-2.3	-4.3	
65세 이상(E)	1,618	1,737	1,863	2,175	1.4	0.7	1.6	
외국인	60.5	95.9	241.3	607.3	9.7	9.7	9.7	
농어촌 인구 구성비	0~14세	(17.1)	(13.9)	(9.0)	(7.2)	-4.0	-4.3	-2.2
	15~64세	(63.8)	(63.7)	(60.2)	(45.3)	0.0	-0.6	-2.8
	65세 이상	(18.5)	(21.2)	(27.2)	(37.1)	2.8	2.5	3.1
	외국인	(0.7)	(1.2)	(3.5)	(10.4)	11.2	11.6	11.4
B/A(%)	18.2	16.7	13.9	12.0	-1.7	-1.8	-1.4	
총부양비	55.7	55.2	60.1	98.0	-0.2	0.9	5.0	
유소년부양비(C/D×100)	26.8	21.9	15.0	16.0	-4.0	-3.7	0.7	
노년부양비(E/D×100)	29.0	33.4	45.2	81.9	2.9	3.1	6.1	
노령화지수(E/C×100)	108.2	152.6	301.9	511.9	7.1	7.1	5.4	

자료: 한석호 외(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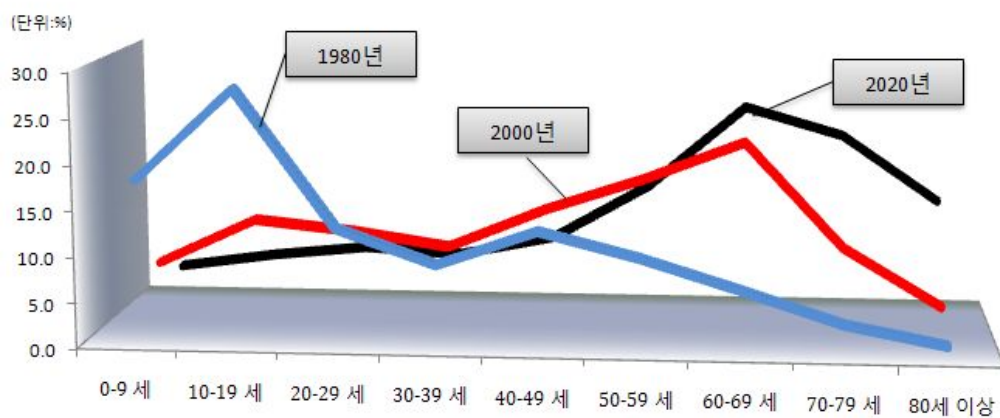
- 농촌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임(표 2-2 및 그림 2-1참조).
- 201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118만호로 향후 10년 후인 2020년에는 농가호수가 2010년 수준보다 17만 호가 감소한 101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9만 명(2.9%) 감소한 301만 명으로 향후 10년 이후인 2020년에는 2010년보다 약 73만 명 감소한 228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2-2.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망

구 분	단 위	2010	2015 (전망)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15/10	20/15
농가호수	천호	1,177	1,092	1,010	-1.5	-1.6
농가인구 (65세이상 농가인구 비)	천명 %	3,063 (31.8)	2,621 (39.6)	2,283 (44.7)	-2.8 (2.6)	-2.8 (2.4)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	%	6.2	5.3	4.6	-2.9	-2.8

자료: 박성재 외(2010)를 수정보완

그림 2-1. 연령별 농업인구비중 변화 전망



자료: 박성재 외(2010).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0년 44.7%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5.3%, 2020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 농촌(읍·면부)의 생활편익시설의 보급률은 크게 개선됨(표 2-3 참조).
- 농촌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2000년 52.2%에서 2020년 90%, 2030년 95%로 개선될 전망이다.
  - 농촌의 상수도보급률은 2000년 22.4%에서 2020년 70%, 2030년 80%로 개선될 전망이다.
  - 농촌의 자동차 보급률은 2000년 41.4%에서 2020년 80%, 2030년 90%로 높아질 전망이다.
  - 농촌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률은 2000년 24.1%에서 2020년 70%, 2030년 85%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2-3. 농촌(읍·면부)의 생활편익시설 보급의 추이와 전망(2000~2030)

단위: %

지표 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52.2	80	90	95
상수도 보급률	22.4	50	70	80
자동차 보급률	41.4	60	80	90
PC 보급률	24.1	50	70	85

자료: 김정호 외(2010).

## 2.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 2.1. 사회적 영향

-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될 것임.
  -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생활권의 확대와 더불어 마을을 넘어서서 확장될 것임.
  - 생활상의 욕구들이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실현됨에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공간적 범위는 지리적 경계를 서로 달리하는 몇 가지 생활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됨. 그리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간의 연대나 상호작용의 공간적 범위는 더욱 광역화 됨.
  - 전통적으로 자연마을 단위에서 유지되던 농어촌지역 공동체의 자치적 복지기능은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입이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확대될 것임.
  
- 농어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농어촌지역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것임.
  - 도·농 혼주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외국인의 유입 증가, 농업인들의 품목별 분화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농어촌 학교교육의 수요는 감소하나 사회교육의 요구가 증가할 것임.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학교교육의 수요는 감소할 것임.
  - 고령화 및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게 증가할 것임.

-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개념이 붕괴되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평생 걸친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시됨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통합될 것으로 전망됨.
- 100세 시대에는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
  - 100세 시대에는 배우자관계에 있어서도 재혼이나 삼혼 등의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혼인 형태의 가족이 늘어날 것임.
  - 세대 측면에서는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길어진 노후생활로 인해서 가족 내부의 갈등이 증가할 것임.
  - 100세 시대에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거나 건강의 상실로 타인의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가함.
  - 고령화로 노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갈등도 증가함.
  - 노후의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도 증가함.

## 2.2. 경제적 영향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임.
  - 2010년의 경지면적은 172만ha로, 향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10년보다 13만 3천ha 감소한 159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표 2-4 참조).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10년 1.46ha에서 2020년 1.57ha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

- 농가인구 당 경지면적은 2010년 57.2a에서 2015년 62.5a, 2020년 69.6a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 이에 따라 소수의 젊은 전업적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개편될 것임.
- 전업농의 생산 비중은 2030년경에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쌀 생산은 자급적 농가가 위탁영농 형태로 존재할 것이지만, 시설원예와 축산 경영은 대규모 전업농이 시장을 주도할 것임. 또한 농업법인은 2030년에 8천 개소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표 2-4.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단위	2010	2015 (전망)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15/10	20/15
경지면적	천ha	1,722	1,638	1,588	-1.0	-0.6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46	1.50	1.57	0.5	1.0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a	57.2	62.5	69.6	1.8	2.1
재배면적	천ha	1,811	1,778	1,760	-0.4	-0.2

자료: 박성재 외(2010)를 수정보완

○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친화 농업이 부각될 것임.

- 고령화는 대응 여하에 따라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측면도 존재함. 위기 측면이란 고령농이 다수 잔류하는 경우에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며, 기회 측면이란 후계농업인 참여와 영농규모 확대 등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임.
-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로 ‘고령친화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고령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도시민의 은퇴노후형 귀농·귀촌프로그램이 정착될 것임. 특히 도시의 은퇴자 유치를 위한 전원형 고령친화농

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등이 조성되고, 귀농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컨설팅 등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표 2-5. 고령화 영향 시나리오

구 분	주요 특징
지속발전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여성 인력 및 외국인 노동자의 조화</li> <li>• 고령 친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확보</li> <li>• 고령화사회 전환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고령층의 안정적 수요 확보</li> </ul>
쇠퇴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 생산성 저하 → 성장둔화 → 신규진입 감소 → 고령농 잔류’ 악순환</li> <li>•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체인력 공급확보 부진</li> <li>• 고령농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악화</li> </ul>

자료: 김정호 외(2010).

표 2-6. 고령화에 대한 주체별 대응 방향

구 분	농업생산기능 저하에 대한 대응	농촌 사회기능의 변화에 대응	고령자 자신의 삶 회복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에 적합한 농업 생산</li> <li>• 지역농업 추진에 관한 지도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경험을 활용한 활동(문화전승)</li> <li>• 마을 활동에 관한 지도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능력 계발, 건강 관리</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 조직화(농작업 수위탁, 농지임대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의 역할 부여</li> <li>• 생활환경 정비</li> </ul>	
정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형 작목, 작업 개발 보급</li> <li>• 유연한 경영승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기회 제공</li> <li>• 생활설계, 건강관리 지도</li> </ul>

자료: 김정호 외(2010).

- 농어촌에서의 농업관련 산업분야 및 비농업분야 종사 인구의 증가로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가 확대될 것임.
  - － 농어촌인구에서 농가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어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임. 농어촌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43%에 달하였으나, 2010년에는 36%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2·3차 산업 부문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임.
  - － 가령, 순창군의 고추장 산업화, 횡성군의 한우 산업화, 보성군의 녹차 산업화, 의성군의 마늘 산업화, 영광군의 굴비 산업화 등을 통해 단지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나아가 2·3차 산업화 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
  - － 농특산물 특화 및 전문화, 광역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농촌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분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식품 제조업 분야 등으로 집계됨. 앞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부문의 후방에 연계된 제조업체가 농어촌에 입지하고 전방 산업체와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그 밖에 농어촌의 내수 서비스를 책임지는 보건,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간은 소폭으로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농어촌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농어촌관광은 더욱 확대될 것임(표 2-7 참조).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7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농촌관광 비중은 2005년에 국내관광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4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 －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이 국내관광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유럽과 같이 단순한 도농교류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는 경향이며, 경관농업, 휴양레저농업, 도시(정원)농업과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농촌관광마을 수는 2010년 현재 약 800개소에서 2030년에는 2천개소 정도로 늘어나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표 2-7. 농촌관광 수요의 추이와 전망(2005~2030)

단위: 만명, %

구 분	국내여행 인구 총량 (A)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인구(B)	비중 (B/A)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 인구(C)	비중 (C/A)
2005	25,779	3,867	15.0	464	1.8
2010	27,848	5,708	20.5	801	2.9
2015	29,414	8,426	28.6	1,308	4.4
2020	31,067	12,438	40.0	2,136	6.9
2030	59,468	27,102	45.6	5,692	9.6

자료: 김정호 외(2007).

○ 귀농·귀촌자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농어촌에서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이 강화될 것임.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인구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홍보와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잠재 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 대비 농어촌 거주 인구는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근의 귀농·귀촌은 도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도시적 삶이나 경쟁적 사회에 대한 자기성찰과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적 삶에 대한 욕구가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메가트렌드로서 대안문화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서 귀농·귀촌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은퇴한 연령층이 아니라 젊고 경쟁력 있는 계층의 농촌 이주가 매우 활발해질 것임.
- 농어촌에 새롭게 정주하게 되는 도시민들은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통근하거나, 통근이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일종의 자원봉사나 취미활동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농어촌에는 다양한 클럽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임. 생태농업, 로컬푸드, 지역화폐 등이 통용되는 농어촌 지역사회가 보다 많아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가 더욱 촉진될 것임.

## 제 3 장

###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 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음.
  - － 권역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각 각 125명씩 총 500명임.
  -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유형별 분포는 대도시근교 농촌이 125명(25.0%), 평야지역 농촌이 176명(35.2%), 중·산간지역 농촌이 74명(14.8%), 어촌이 125명(25.0%)임.
  - － 성별 분포는 남자가 229명(45.8%), 여자가 271명(54.2%)임.
  - －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123명(24.6%), 40대가 118명(23.6%), 50대가 123명(24.6%), 60대 이상이 136명(27.2%)임.
  - － 학력은 중졸이하가 165명(33.0%), 고졸이 208명(41.6%), 대학 재학 이상이 127명(25.4%)임.
  - － 직업은 농림어업이 24.6%, 자영업 및 서비스업이 19.2%, 화이트칼라가 15.2%, 주부가 15.0% 등임.

표 3-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전 체		사례 수	비율(%)
		500	100.0
권역	경기·강원권	125	25.0
	충청권	125	25.0
	전라권	125	25.0
	경상권	125	25.0
지역유형	대도시근교	125	25.0
	평야지역	176	35.2
	중·산간지역	74	14.8
	어촌	125	25.0
성별	남자	229	45.8
	여자	271	54.2
연령	20대	44	8.8
	30대	79	15.8
	40대	118	23.6
	50대	123	24.6
	60대 이상	136	27.2
학력	중졸 이하	165	33.0
	고졸	208	41.6
	대학 재학 이상	127	25.4
직업	농림어업	123	24.6
	화이트칼라	76	15.2
	자영업	96	19.2
	서비스·판매직	52	10.4
	블루칼라	19	3.8
	주부	75	15.0
	기타	59	11.8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59	11.8
	500만원 ~1천만원	74	14.8
	1천만원 ~2천만원	89	17.8
	2천만원 ~3천만원	104	20.8
	3천만원 ~4천만원	96	19.2
	4천만원 ~5천만원	33	6.6
	5천만원 이상	45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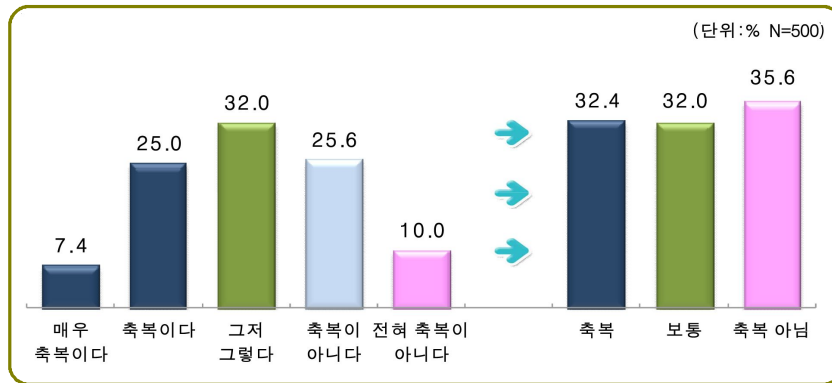
- 가구소득은 ‘500만원 미만’이 11.8%, ‘500만원~1천만원’ 14.8%, ‘1천만원~2천만원’ 17.8%, ‘2천만원~3천만원’ 20.8%, ‘3천만원~4천만원’ 19.2%, ‘4천만원~5천만원’ 6.6%, ‘5천만원 이상’ 9.0%임.

## 2.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 ○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귀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의견은 32.4%, ‘그저 그렇다(보통)’ 32.0%, ‘축복이 아니다’는 35.6%로 나타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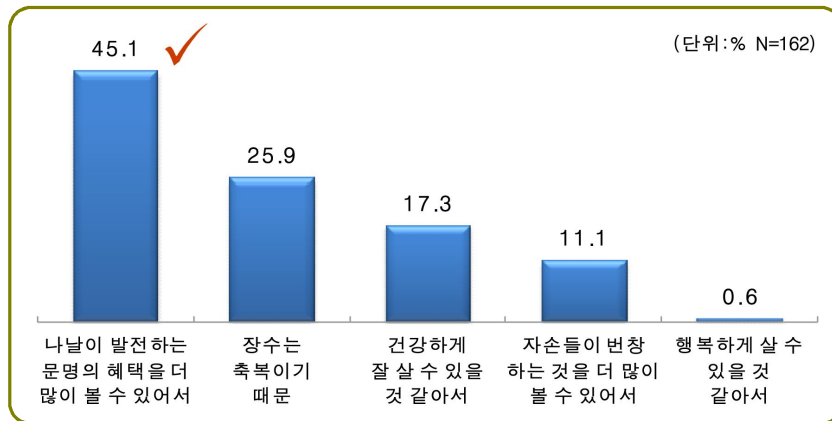
그림 3-1.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가 45.1%,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에’가 25.9%,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7.3%순이었음(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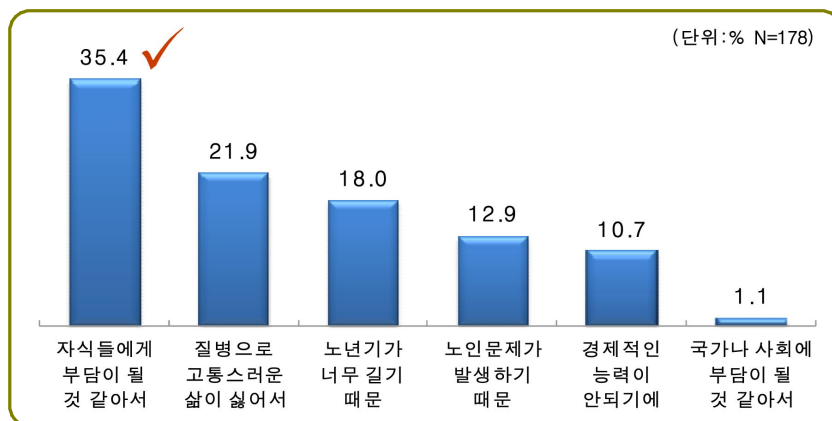


그림 3-2.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가 35.4%,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이 싫어서’가 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 18.0%순이었음(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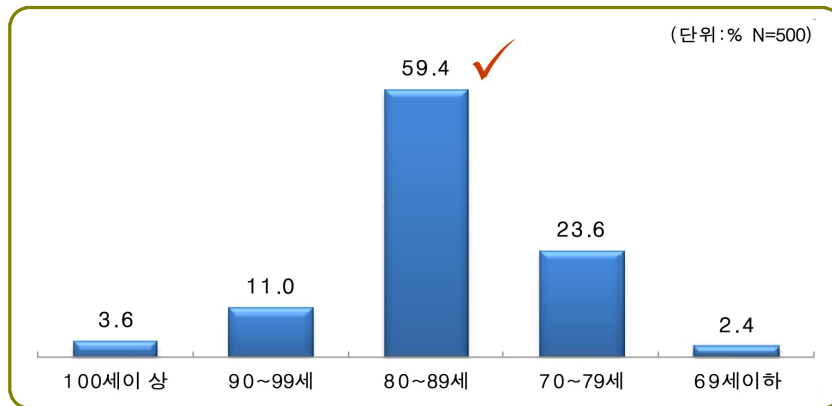
그림 3-3.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4%, ‘70~79세’가 23.4%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농어촌주민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그림 3-4 참조).

그림 3-4.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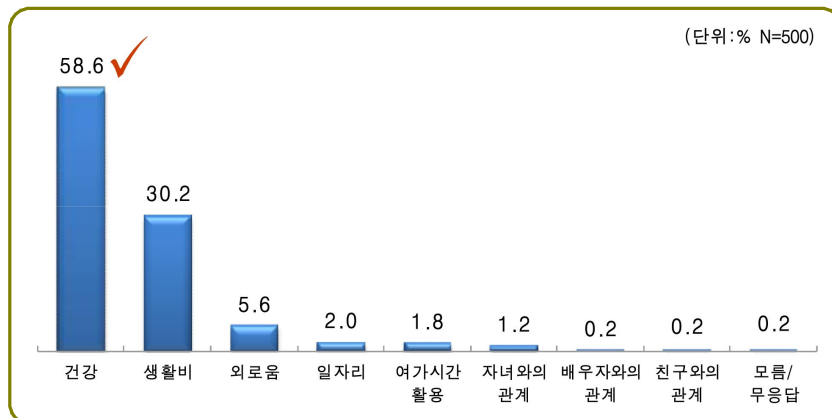


### 3. 노후생활 준비

○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귀하에게 가장 고민이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58.6%), 생활비(30.4%) 순이었음(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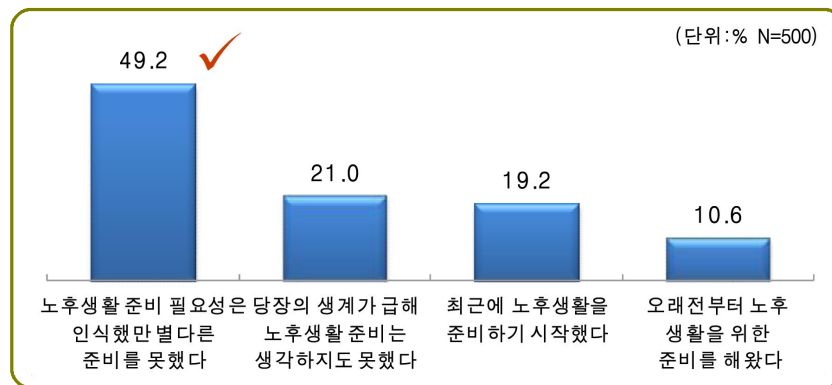
그림 3-5.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49.2%,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21.0%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70.2%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그림 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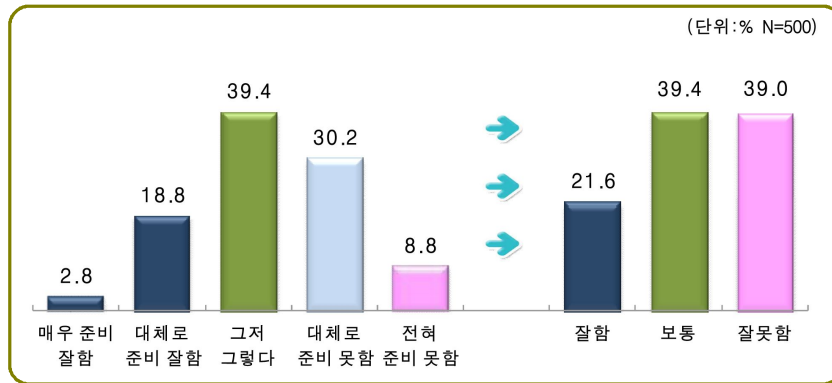
그림 3-6.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우리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21.6%)보다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39.0%)가 더 많았음(그림 3-7 참조).

그림 3-7.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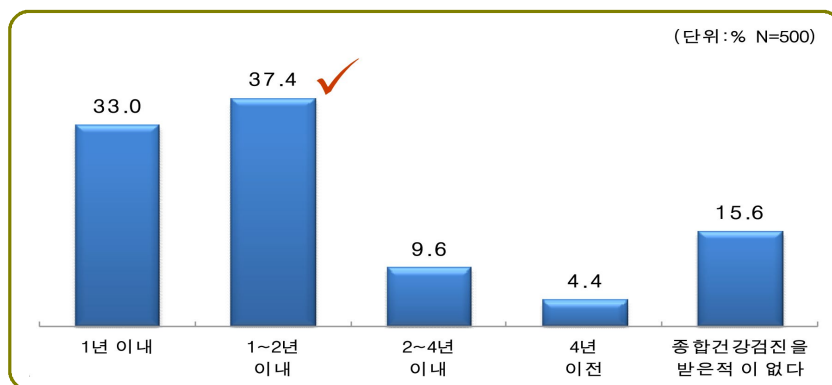


#### 4.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 ○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0.4%가 2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5.6%이었음(그림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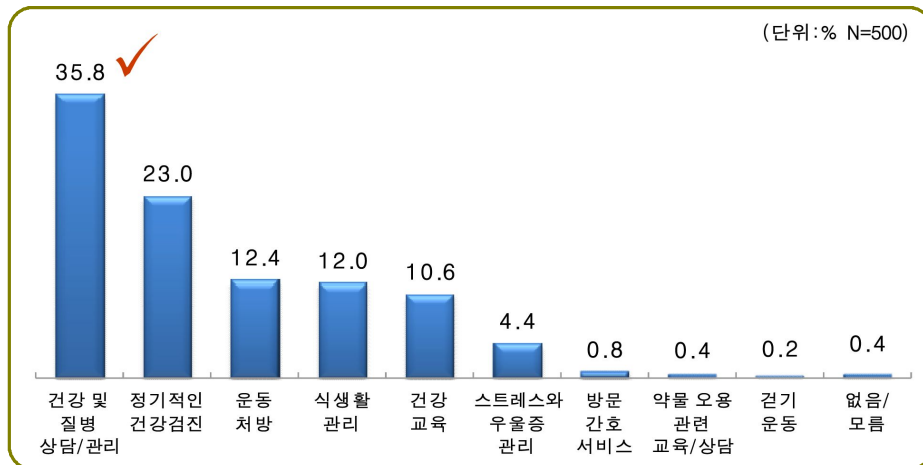
그림 3-8.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 ‘귀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가장 이용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 및 질병 상담·관리’ 35.8%, ‘정기적인 건강검진’ 23.0%, ‘운동 처방’ 12.4%, ‘식생활 관리’ 12.0% 순이었음(그림 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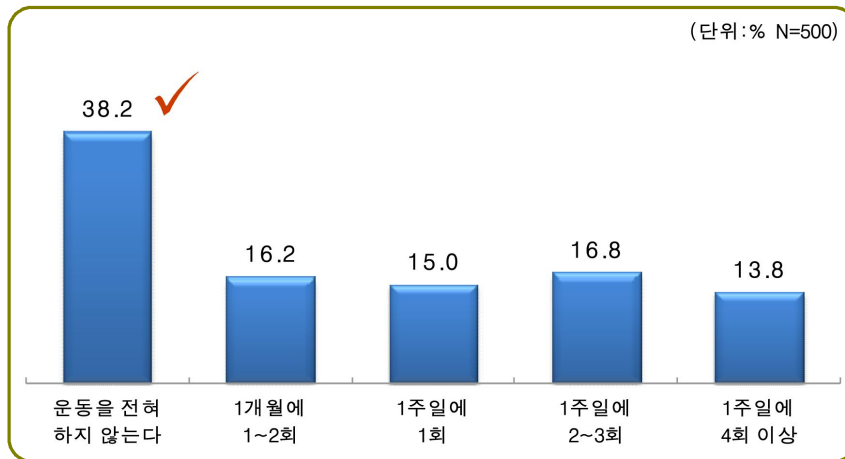
그림 3-9.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 평소 운동 빈도

- ‘귀하는 평소에 운동(하루 20분 이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3회’가 16.8%로 그 다음이었음(그림 3-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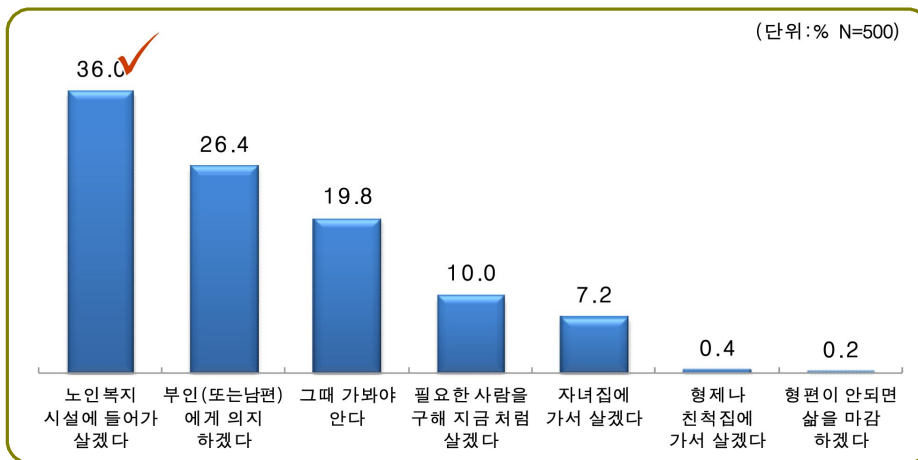
그림 3-10. 평소 운동 빈도



○ 노후에 건강 악화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안

- ‘귀하는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살겠다’ 36.0%, ‘부인(또는 남편)에게 의지하겠다’ 26.4%, ‘그때 가봐야 안다’ 19.8% 순이었음(그림 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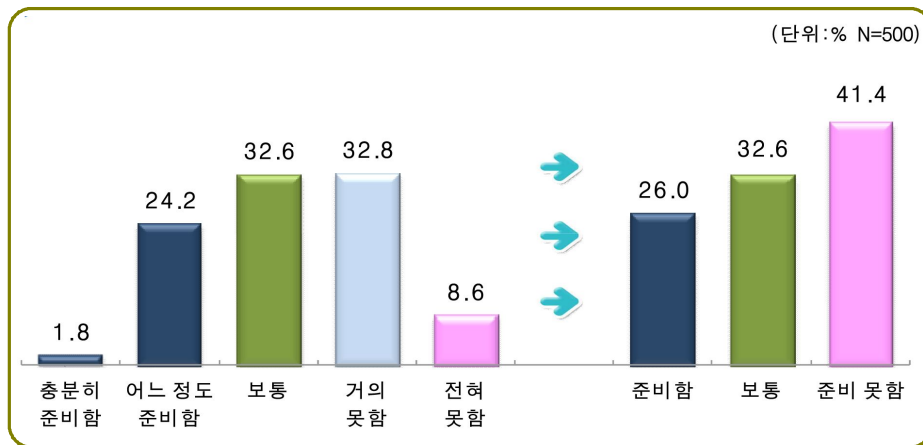
그림 3-11. 노후 건강 악화 시 대처 방안



○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건강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2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41.4%)가 더 많았음(그림 3-12 참조).

그림 3-12.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 5. 소득 및 소비

○ 월 평균 노후생활비

-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개인은 96만 6천원, 부부는 174만 6천원 이고,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개인은 145만원, 부부는 248만 2천원이었음(그림 3-13 참조).

그림 3-13. 월 평균 노후생활비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 여부

-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은 보험(70.2%), ‘계속 일을 함’(64.6%), 저축(63.8%), 공적 연금(50.0%) 순이었음(그림 3-14 참조).
-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대책은 저축(78.0%), ‘계속 일을 함’(70.0%), ‘보험’(63.8%), ‘공적 연금’(54.4%), ‘개인연금’(50.2%) 순이었음(그림 3-15 참조).

그림 3-14. 현재 마련 중인 노후 경제적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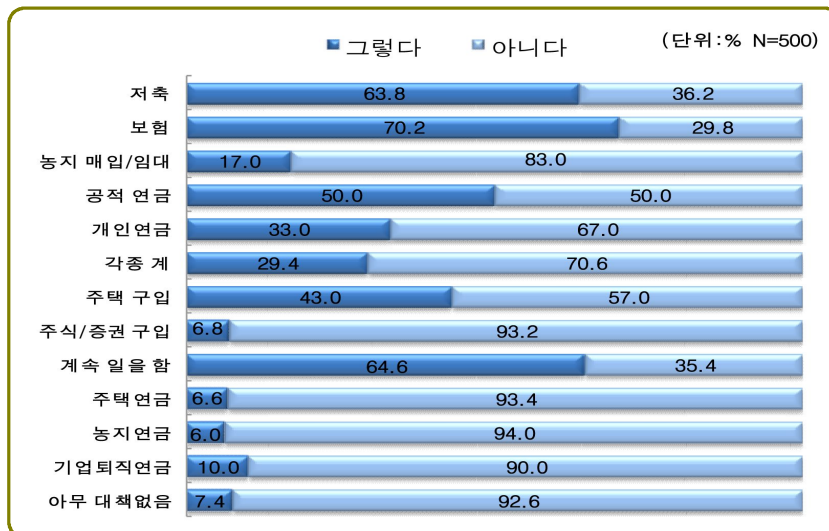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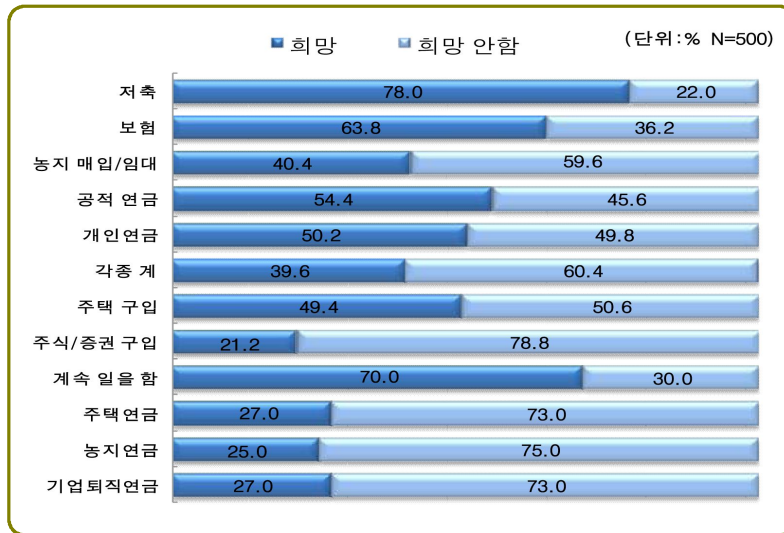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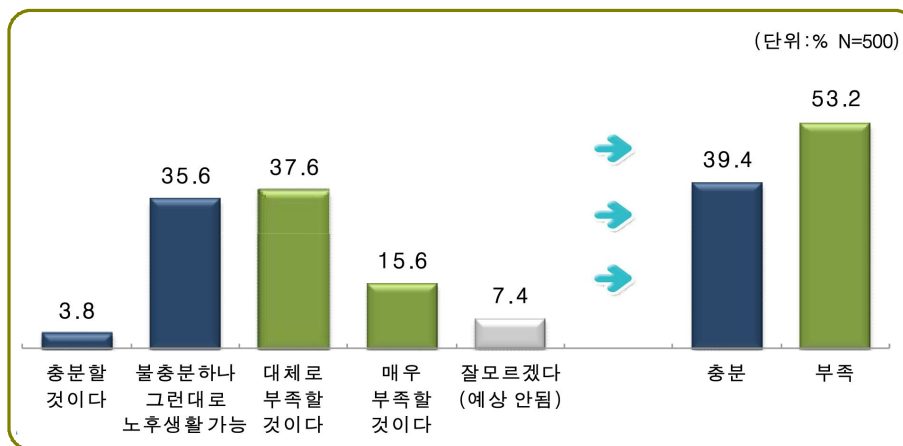
그림 3-15. 앞으로 강화 희망 노후 경제적 대책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 ‘현재 귀택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제적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39.4%)보다 ‘부족하다’(53.2%)가 많았음(그림 3-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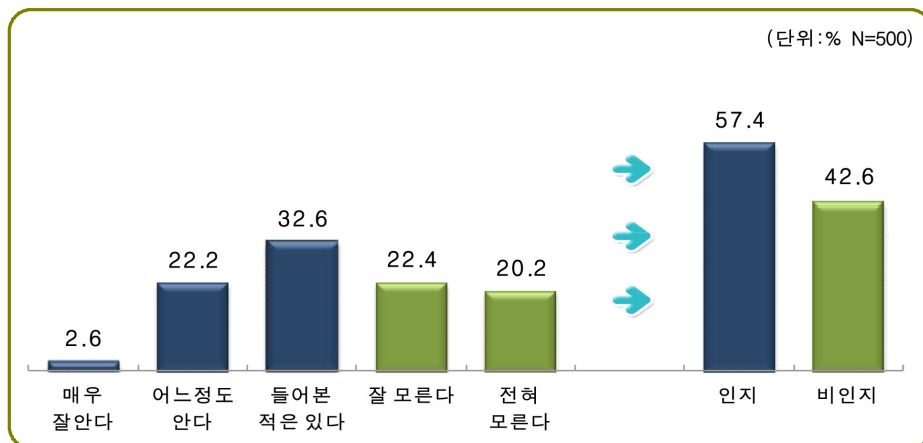
그림 3-16.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 ○ 농지연금 인지 정도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7.4%는 인지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42.6%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그림 3-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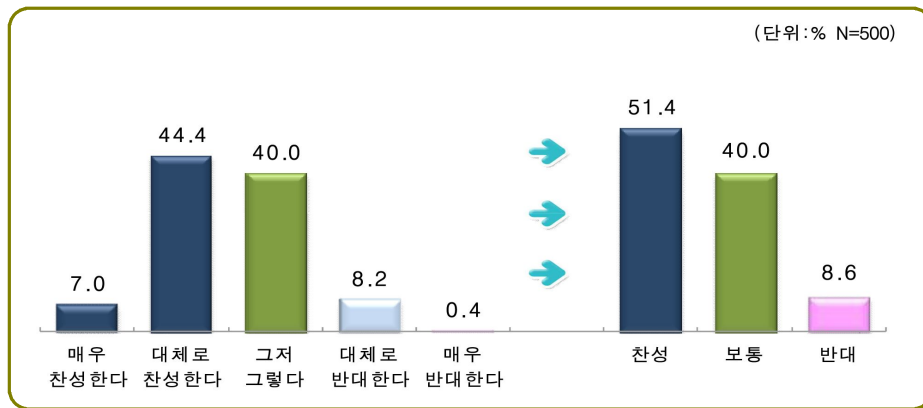
그림 3-17. 농지연금 인지 정도



## ○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는 노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지연금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찬성한다’(51.4%)가 ‘반대한다’(8.6%)보다 훨씬 높았음(그림 3-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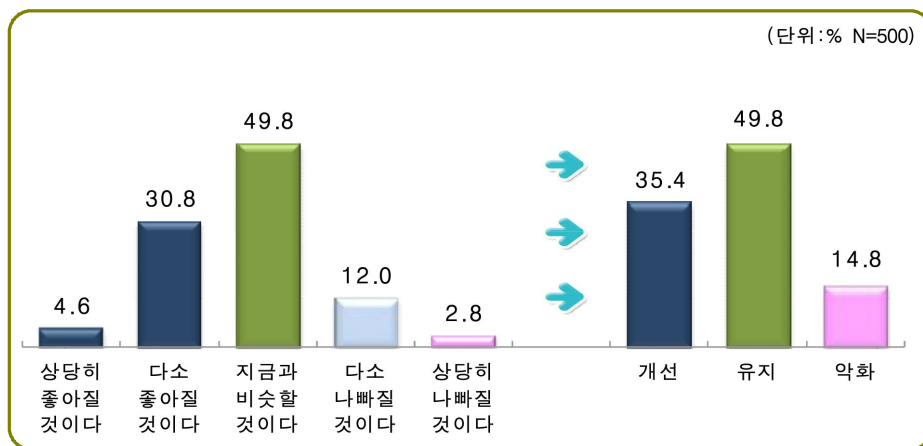
그림 3-18.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개선)’ 35.4%,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유지)’ 49.8%, ‘나빠질 것이다(악화)’ 14.8%이었음(그림 3-19 참조).

그림 3-19.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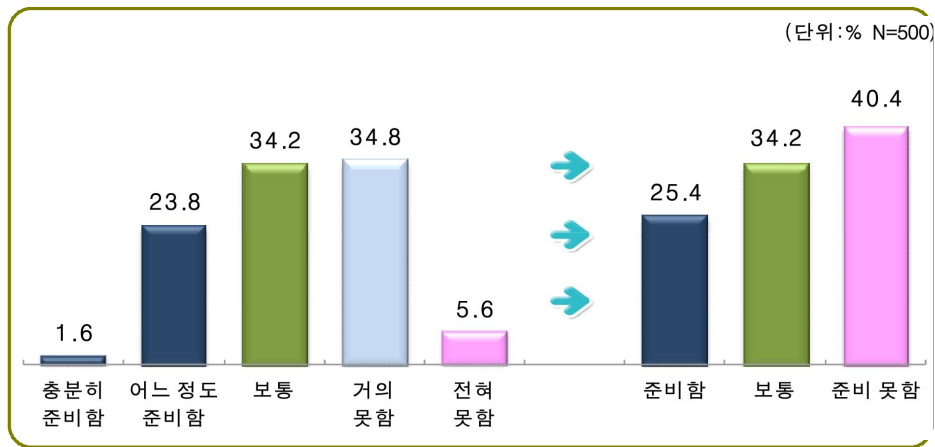


○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25.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40.4%)가 훨씬 더 많았음(그림 3-20 참조).

그림 3-20.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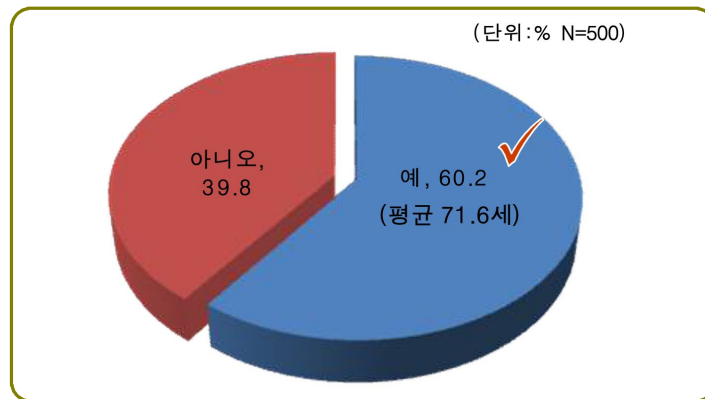


## 6. 일자리

### ○ 노후 노동 희망 여부

- ‘귀하는 노후(65세 이상)에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2%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 평균 노동 연령은 71.6세이었음(그림 3-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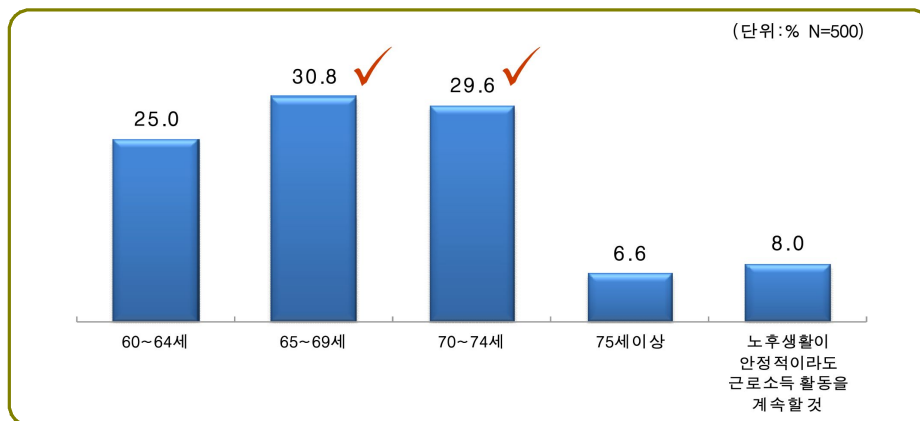
그림 3-21. 노후 노동 희망 여부



## ○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 ‘귀하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근로소득 활동을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65~69세’가 30.8%, ‘70~74세’가 29.6% 순으로 나타남(그림 3-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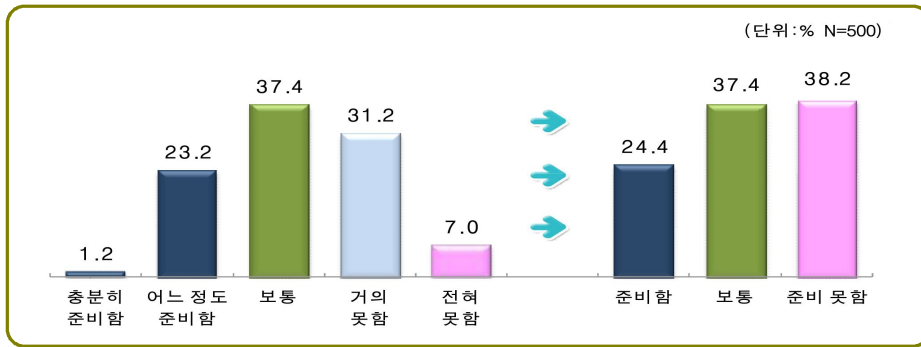
그림 3-22.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 ○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 하고 있다’(24.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38.2%)가 많았음(그림 3-23 참조).

그림 3-23.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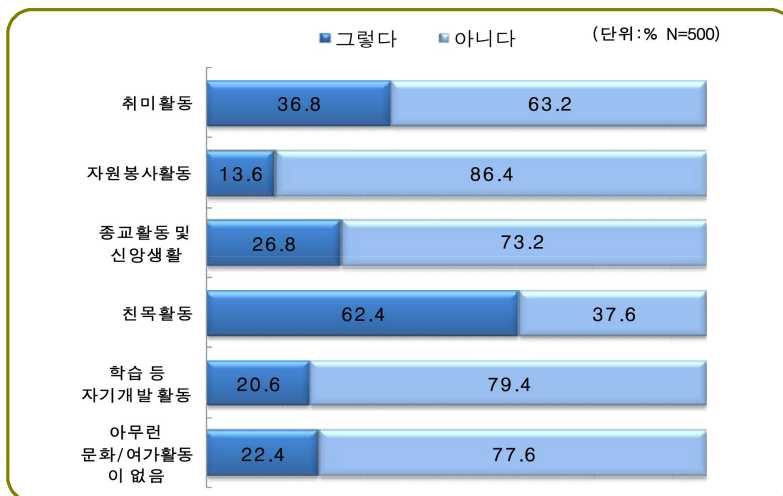


## 7. 여가 및 문화 활동

###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 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62.4%), ‘취미활동’(36.8%),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26.8%) 순이었음 (그림 3-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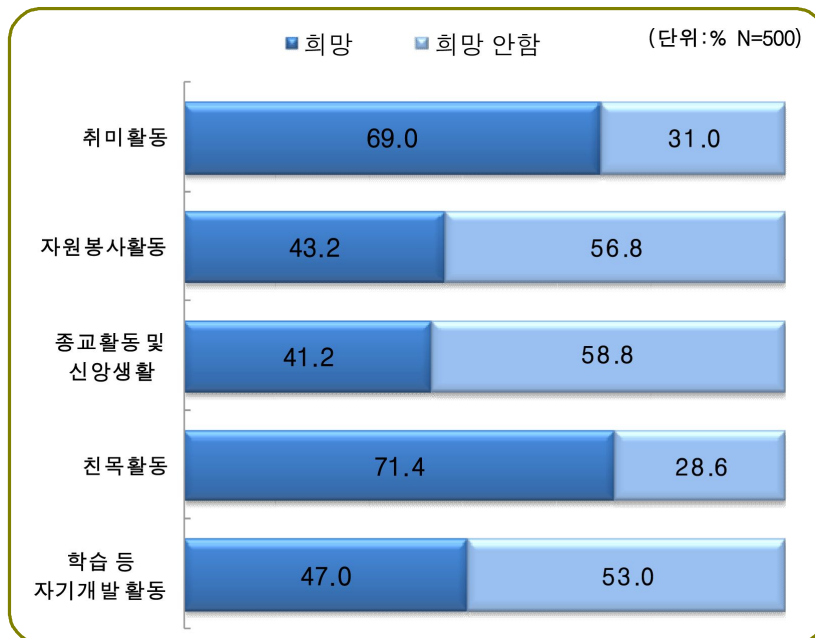
그림 3-24.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한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71.4%), ‘취미활동’(69.0%),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47.0%) 순이었음(그림 3-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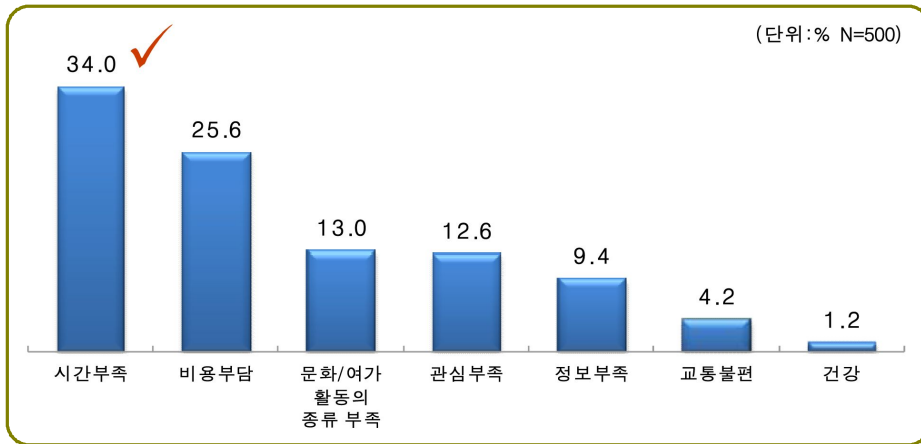
그림 3-25.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 ‘귀하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간 부족’(34.0%), ‘비용 부담’(25.6%) 순이었음(그림 3-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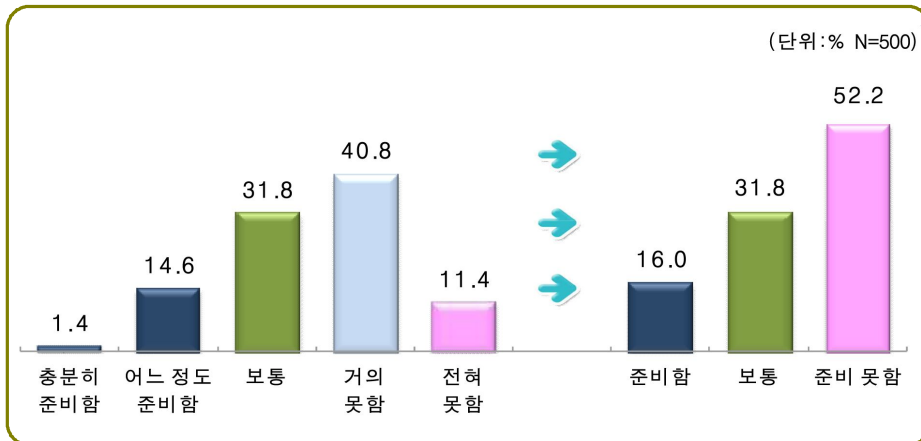
그림 3-26. 여가·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 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1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52.2%)가 훨씬 많았음(그림 3-27 참조).

그림 3-27.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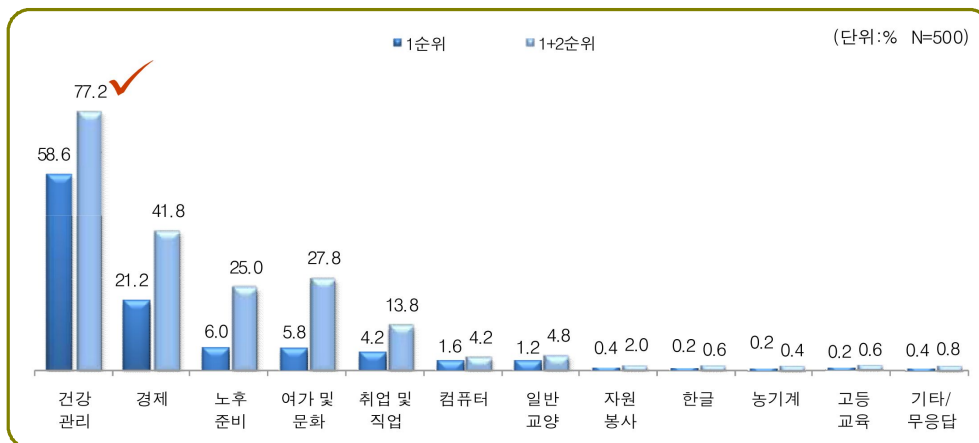


## 8. 기타

### ○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건강관리교육’(77.2%), ‘경제교육’(41.8%), ‘여가 및 문화교육’(27.8%), ‘노후준비교육’(25.0%) 순이었음(그림 3-28 참조).

그림 3-28.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 ○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 ‘귀하께서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담서비스’(29.8%), ‘방문교육’(26.2%), ‘집합교육’(21.4%) 순이었음(그림 3-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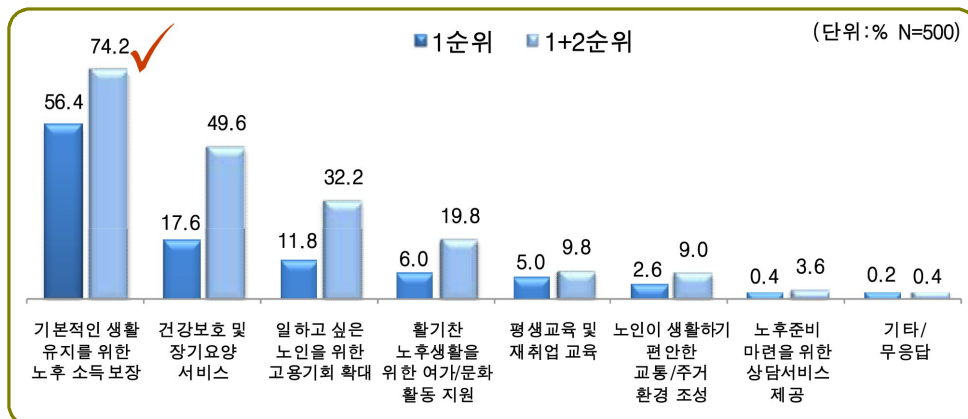
그림 3-29.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 100세 시대에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74.2%),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 서비스’(49.6%),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32.2%) 순이었음(그림 3-30 참조).

그림 3-30.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9. 소결

-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의견은 32.4%, ‘그저 그렇다(보통)’ 32.0%, ‘축복이 아니다’는 35.6%로 나타남. 즉,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어촌주민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음.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가 35.4%,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이 싫어서’가 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 18.0%순이었음.
  
-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 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49.2%,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21.0%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70.2%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는 ‘건강 및 질병 상담·관리’ 35.8%, ‘정기적인 건강검진’ 23.0%, ‘운동 처방’ 12.4%, ‘식생활 관리’ 12.0% 순이었음.
  
- 노후에 건강 악화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 ‘노인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살겠다’ 36.0%, ‘부인(또는 남편)에게 의지하겠다’ 26.4%, ‘그 때 가봐야 안다’ 19.8% 순이었음.
  
- 월 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개인은 96만 6천원, 부부는 174만 6천원이고,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개인은 145만원, 부부는 248만 2천원이었음.

- 현재 마련 중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은 보험(70.2%), ‘계속 일을 함’(64.6%), 저축(63.8%), 공적 연금(50.0%) 순이었음.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은 저축(78.0%), ‘계속 일을 함’(70.0%), ‘보험’(63.8%), ‘공적 연금’(54.4%), ‘개인연금’(50.2%) 순이었음.
- ‘귀하는 노후(65세 이상)에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2%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 평균 노동 연령은 71.6세이었음.
-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는 ‘준비 하고 있다’(24.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38.2%)가 많았음.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 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62.4%), ‘취미활동’(36.8%), ‘종교 활동 및 신앙생활’(26.8%) 순이었음. 노후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71.4%), ‘취미활동’(69.0%),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47.0%) 순이었음. 그리고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34.0%), ‘비용 부담’(25.6%) 순이었음.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74.2%),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49.6%),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32.2%) 순이었음.

## 제4 장

###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

#### 1.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 농어촌 복지 및 고령화 관련 기본계획

####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10~'14) 기본계획(이하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라 함)의 비전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는 것임.
  -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임.
  -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를 도입

하고, ②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며,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 －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농어촌영향평가)은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시범 적용을 한 다음 확대될 예정임.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7대 부문(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별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10~'14) 중의 총 투융자규모는 3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국비 22조 7천억 원, 지방비 11조 1천억 원, 기타 7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령농업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①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 도입, ②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 있게 운영, ③ 영세·고령 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함.

##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0~'14)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임.
  -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①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강화, ②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0~'14)의 추진방향은 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②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전적 투자 확대, ③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아동·여성·가족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⑤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격차의 최대한 완화 등임.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0~'14)의 추진과제는 크게 3개 부문(기본생활보장 강화, 연령·세대 사회통합, 보건의료기반 개선 및 건강 증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기간 중('10~'14)의 총 투융자규모는 4조 5,421억 원으로 국비 2조 6,410억 원, 지방비 1조 9,011억 원으로 구성됨.
- 노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

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만 원→3천5백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 이를 통하여,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임.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을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됨. 5년동안 7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의 과제로는 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②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③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강조함.
  - － 농어촌에 특화된 과제로는 농어촌 고령자의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② 농지연금 도입을 제시함.



## □ 문제점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음.

## 1.2.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관련

- 그 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전업농 중심의 생산지원에 치중하여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이나 이들의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과 대책이 크게 부족했음.
- 대부분의 고령 농업인은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크게 불안정함.
  -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가구당 평균 영농규모는 0.8ha에 불과하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77.5%임.
-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의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농업인 특례 및 자활사업 등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 특례제도(농어가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가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로 인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 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아주 낮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인구 비율은 농촌(14.8%)이 대도시(6.6%)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그러나 빈곤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구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데 비해서 농촌은 48.6%에 불과하여 농촌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자료('05)에 따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45.7%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도 소액에 불과함.
  - － 65세 이상 농가 594천 가구 중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및 금융권의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연금) 미 수급 농가는 272천 가구로 45.7%를 차지함.
  - － 연금 수급액(년)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2.6%
-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상당히 낮음.
  - － 가처분소득의 부족 등으로 국민연금 미 가입률이 높음.
  - － 통계청의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어가의 국민연금 미 가입률은 44.4%(도시주민은 28.5%)

- 농업인의 국민연금 신고소득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작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임.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 농업인 사망 시에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임.
  -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 지급 방식: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행’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
- 농지연금이 정착될 경우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연금 모형에 따르면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됨.
- 그러나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당한 농지가격을 평가받기 어려운 실정임.
  -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50~60%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음.
  -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남.

- 농지가격이 싼 일반농촌의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대다수의 고령 농업인은 펀드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1.3. 일자리 마련 관련

- 일자리 마련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 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사업 종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능)임.
- 노인일자리 종류로는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 분야에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이 있음.
  -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는 월 20만원 7개월 지원, 민간분야는 수익에 따라 배분함.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 자리는 판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음. 그리고 1년 중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 □ 농어촌 공동체회사

- 농림수산물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의미함.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특성별로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으로 유형화됨.
- 농림수산물부에서는 2015년까지 3,000개소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2011년 5월에 139개 기초자치단체(86개 군, 53개 도농복합시)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그 결과 전국 농어촌에는 443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분포하고 있음.
  - 이중에서 농식품산업형이 40.4%, 도농교류형이 39.7%, 지역개발형이 4.5%, 복지서비스형이 9.0%, 복합형이 6.3%의 분포를 보였음.
- 139개 시·군 중 33.1%에 해당하는 46개 지역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포함된 443개 조직 대부분은 정부사업이 투입된 마을 단위 조직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형태임.

-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 농촌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 2.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국내외의 농어촌부문 모범사례

### 2.1. 국내의 모범사례

#### □ 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

- 2006년 2개소에서 2011년 현재 108개 그룹홈 개소, 기존 경로당에 지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사업(그룹홈)으로 시 사업임.
  -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운영사업이라고도 지칭함.
- 기존 경로당의 개·보수비용으로 1,500만~2,500만원, 운영비는 연간 300만원(하절기 2분기는 50만원씩, 동절기 2분기는 100만원씩) 지원
  - 일반 노인회관은 194만원(유류비, 운영비, 간식비 등 포함) 지원
  - 신축 시에는 개소 당 5,000만원 지원
  - 장비(이불장, 침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보장: 개소 당 650만원
-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축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

- 약 303억 원(공공 231억 원, 민자 72억 원) 투자를 통해 110,000㎡ 부지에 노인전용 주택단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건

강체육시설, 공동농장 등을 설치함.

-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단지 운영으로 군 자체 복지증대를 통한 인구 증가 유발효과를 노림.
- 공동농장을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
- 복지마을 등에서 필요한 농산물(엽채류, 과채류 등)의 80% 이상을 생산
-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처는 1차는 복지마을, 2차는 관내 복지시설, 3차는 학교급식 등임.

## □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

- 천안시 병천면에 소재한 아우내은빛복지관은 1999년에 개관하였으며 천안시 동부지역 6개 읍·면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임. 바로 옆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지역별로 8회 운영하고 있음.
  - 원거리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역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시설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이동노래방, 이동영화상영, 레크리에이션 등의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 내 기업, 대학교(기술교육대 사회봉사센터, 단국대 스포츠의학과), 고등학교(병천고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함.
  - 마을회관을 재가복지, 여가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삼고 지역주민 중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발굴하여 교육 등을 통해 마을 단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부여하여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 칠곡군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 칠곡군 보건소와 군내 경로당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여가선용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칠곡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은 노인의 근력

강화와 식습관 개선,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배양을 통해 자기 효능감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건강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건강행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인 단체 또는 경로당으로 총 3개월간 주 2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동(스트레칭 및 요가), 영양, 금연, 절주, 치매예방 등 다양한 영역을 순환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 횡성군의 시설이며, 현재는 가톨릭재단에서 위탁 운영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접하여 어린이집, 노인의 집,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횡성군내의 면단위로 복지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열악한 교통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군내에서 균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복지지도자대학’을 개설하여, 면 당 15~30명(리별 2~3명)을 교육시키고 있음.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횡성손맛사업단에서 감자떡, 손만두, 찹쌀편을 생산하고 있으며, ‘창업모델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황토소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보람찬 강사단(동화책 읽어주기 등 학습지도)과 신바람 강사단(여가활용 강사 파견)을 운영하고 있음.



## 2.2. 외국의 모범사례

### 2.2.1. 일본

#### □ 아이치현(愛知縣) 아스케정(足助町)<sup>1)</sup>의 하쿠넨소우(百年草)와 아스케야시키

- 일본 아이치현 아스케정에 위치한 「하쿠넨소우」와 「아스케야시키」는 농촌 관광과 노인복지의 접목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대표사례로 일본에서 몇 안 되는 농촌관광을 통한 흑자경영 사례임.
- 「하쿠넨소우」는 1990년에 세워졌으며 레스토랑, 숙박시설, 목욕탕, 농축산물 가공공장 등으로 구성된 관광시설로서 종사자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시설 내에 ‘데이케어센터’(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모아서 일정 시간 오락·공예·요리 등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나 휴게실 등 각종 복지시설을 배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겸하고 있음.
  - － 노인들이 일하는 시설은 햄·소시지·빵 가공시설로서 종업원 중 절반이 60세 이상으로 모두 지자체 하부기관인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되어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력에 맞게 근무 일수를 정하고 이에 맞게 업무를 함.
- 「아스케야시키」는 1980년에 세워진 시설로 메이지 시대의 농촌생활문화를 재현한 시설임.
  - － 노인들이 11종류 이상의 전통공예기술을 재연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연간 5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1) 현재 도요타시로 통합된 지역임.

## □ 도쿠시마현(德島縣) 가미카쓰정(上勝町)의 이로도리사업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읍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제3섹터 방식의 이로도리 회사에서 감잎, 밤잎, 단풍잎, 동백잎 등을 10매씩 포장한 생산품을 고급요정, 음식점,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사업임.
  - － 이로도리의 나뭇잎 판매사업은 1987년에 시작함.
  - － 330종의 상품 판매로 연간 2억 5,000만 엔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가 3%, 농협이 2% 징수함.
- 회원 및 지역사회의 고소득 사업으로 출하 회원 대부분이 고령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판매사업 등록회원은 177명으로 30대부터 9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나,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로 평균 연령이 67세이며 90%가 여성임).
- 노년기에 적당한 일감을 통해 경제적 성취감을 주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임.
  - － 이 마을은 도쿠시마 현 내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율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늘 현금 수입이 있기 때문임.

## □ 니가타현(新潟縣) 나가오카시(長岡市)의 서포트센터(support center)

- 농촌지역인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일본 노동후생성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서포트센터(support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 개호보험 실시 이후 활성화된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급식서비스, 케어플랜(care plan)센터 등과 치매그룹홈,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등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몇 가지를 선택하여 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치매그룹홈과 케어플랜, 가정봉사원과건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센터, 주간 보호, 도시락배달, 단기보호서비스,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센터 등이 있고 이런 센터 들은 하나의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
  - 이들 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 오키나와(沖縄) 및 나가노현(長野縣)의 생활습관 개선운동

-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도 가장 평균 수명이 길고 백세인 빈도가 높은 지역임.
  - 최근 40년간 위암 및 중풍 사망률의 감소로 평균 여명이 20년 이상 연장된 것은 생활습관 중재가 수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키나와의 생활습관을 버린 이주자들은 오키나와 사람보다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높고,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가노현은 눈이 많고 추운 산악지방으로 1960~70년대에만 해도 단명지역으로 손꼽혔으나, 현재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78.9세로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높으며, 여성의 평균수명도 84.5세로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 1940년대까지만 해도 나가노현은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었음.
  - 의사인 와카스키도시카츠가 1945년 나가노 마을의 작은 병원(사쿠병원)에 부임한 이후 변화가 시작됨.
  - 산속 깊은 곳까지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적인 치료 및 검진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싱겁게 먹기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운동을 펼쳤음.
  - 1970년대 초에는 의사 이마이키요시가 부임하여 지역 의료활동을 펼침.
  - 과거에 수명이 짧은 지역 중 하나였던 곳이 불과 20년 만에 장수지역

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개선운동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2.2. 미국

### □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

- SAI(Successful Aging Initiative)는 미국 클리브랜드 재단이 2005년부터 3년간 총 4백만 달러를 투자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 내에 6개의 평생학습·개발센터(Lifelong Learning and Development Centers) 등 다양한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방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보급된 사업임.
- SAI는 지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화, 치매 및 관련 건강, 금융 및 법률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추진전략으로 지역 내 농촌 지도 시스템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노력에 바탕을 둬.
- SAI를 통해 Cuyahoga County 지역에서 실시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건설(Elder-friendly Community Building) 사업 사례의 경우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모든 관계자(자치단체장, 의회, 담당부서 공무원, 지역 관련기관, 각종 위원회, 노인관련 활동가, 노인문제 전문가, 노인 대표자, 준고령자 등) 중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소득을 고려하여 약 20~25명을 선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턴트를 참여시킨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음.

### □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A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55세 이상이고 빈곤선 125%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의 향상,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함.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의 예로는 교사보조, 컴퓨터 조작용, 보조, 도서관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 2.2.3. 캐나다

#### □ 캘거리시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 캘거리시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는 캐나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aging in place’ 개념이 보편화 되는 배경 속에서 캘거리대학(the University of Calgary)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주도로 추진되었음.
-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는 2001년 1월, 캘거리 시(市)정부, 지역의 보건당국, 그리고 캘거리 대학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마을과 도시 수준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평가하여 노인과 그 가족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임.

-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는 노인, 가족부양자, 지역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대상의 면접을 통해 ① 가치 있고 존경받는 존재, ② 활동성 유지, ③ 지역사회 역량 강화, ④ 최저생활 보장, ⑤ 편안한 주거환경, ⑥ 안전, ⑦ 노인의 욕구충족, ⑧ 이동성 확보 등 고령친화적 사회의 기본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8가지 주제<sup>2)</sup>를 규명하고, 아울러 노인이 지역사회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설정하였음.

## 2.2.4. 프랑스

### □ 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2007~2009)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특히 55세부터 75세 연령대의 국민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립
  - ‘성공적인 노년’을 ‘질병이 없고, 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낮으며, 자율성이 매우 높은 상태의 노년’으로 정의
-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퇴직 시 노년의 위기 요인 예방 및 해소
  - 55세 이후까지 건강 유지를 위해 균형 있는 음식 섭취 장려
  - 신체적 운동 장려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및 질병 예방
  - 올바른 약품 사용 장려
  - 세대 간의 연대활동 장려

---

2) 2003년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서부 4곳의 지역사회는 캐나다 켈거리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켈거리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켈거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고령친화성(elder friendliness)’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욕구수준을 파악한 결과, ① 지역사회의 주거생활, ②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③ 이동성 확보, ④ 활동성 유지, ⑤ 욕구충족, ⑥ 건강유지, ⑦ 지역사회 역량강화 등 7가지가 주제가 애들레이드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확인되었음(Gursansky & Feist, 2005).

- 지역사회 수준에서 ‘성공적인 노년’ 정책 개발
- EU의 ‘건강한 노년 보내기(Healthy Ageing) 2004~2007’ 프로젝트 참여

## □ 중간적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 자택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건강 상태에 보다 적합한 환경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시설, 가정 및 중간적 형태의 시설 등의 세 가지 형태의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 중간적 성격의 시설이란 재택유지와 시설입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소규모의 시설을 의미함.
- 정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치매성 노인 또는 정신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해당 가족의 참여 하에 입소자의 다양한 일상생활 영위를 통해 사회적 격리감을 배제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칸투(CANTOU)가 있으며, 이를 모델로 하면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농촌노인 수용시설인 마르파(MARPA) 등이 있음.
- 마르파는 의존상태에 있거나 독거노인과 같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농촌노인들을 수용함.
  - 농업사회보장기구에서 1986년 노후에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 집합주거단지인 Marpa(Maison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ees)를 설치하여 현재 115개가 환경여건이 좋은 농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2.2.4. 독일

### □ 세대간 통합주거 추진

- 독일의 세대간 통합주거는 2006년 이후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세대 간 통합주거 구성원은 연령별로 보면 청년·장년·노년 층, 가족 형태별로 보면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구 등, 장애별로 보면 장애가구, 비 장애가구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삶.
- 세대간 통합주거의 구조
  - 공용 공간, 만남 공간, 개인 공간으로 구성됨.
  - 공용 공간으로는 목욕탕, 화장실, 취미방, 정원 등이 있고, 만남 공간으로는 공동 거실이나 만남의 공간이 있으며, 개인 공간으로는 개인용 침실과 작업실 등이 있음.
- 2011년 초 현재 독일 전국에 약 500개의 세대간 통합주거가 있음.
  - 연방정부에서는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세대간 통합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주거 당 연간 4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함.
- 독일의 경우 계층이나 소득 격차를 막론하고 세대 간의 통합주거가 가능한 것은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연령이나 가족 상황과 관계없이 연금, 공공부조, 의료보험, 주거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 때문임.



## 2.2.5. EU의 노인인력 고용정책<sup>3)</sup>

### □ 노인인력 고용정책의 배경

-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 장려
  - 1957년 EEC 탄생 이래 고령자 고용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특히 조기퇴직이 많은 가맹국을 중심으로 행해짐.
  - 청년층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일환으로 고령자 조기퇴직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효과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
  -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령자는 연금수급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부담자로서 노동에 종사해야한다는 고령자 고용 장려정책으로 전환
  
- 관련된 정책 연대
  - 고령자고용정책은 연금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고용정책의 기본을 EU 차원에서 협조하여 정책을 전개하면 가맹국 전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정책적 보조를 취하고 있음.

### □ 노인인력 고용정책

- 정책의 유형
  - EU 가맹국들은 「임금보조와 기타 고용장려제도」, 「조기퇴직을 배제하고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연금과 사회보장개혁」, 「고령자를 대상

3) 박상우 외. 2010. 경상북도 지역특성별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으로 한 고용직업훈련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 최근의 정책 동향

- EU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은 고령 노동력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급여제도의 개혁은 물론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활력 있는 노년(Active Ageing)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이 제시됨: 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파트타임 형식을 포함한 유연한 취업형태(working arrangement)를 도입하며 고용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 ②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 활동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를 재검토, ③ 경쟁시장에서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소외계층(고령자, 장애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연대하여 공공부문(보건·복지, 자치단체 고유사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

### 3. 소결

#### ○ 농어촌 복지 및 고령화 관련 기본계획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제점: ①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음. ②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음.

## ○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관련

-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농어촌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 일자리 마련 관련

- 이 자리 마련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음. 그리고 1년 중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 농촌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 ○ 100세 시대 대비 국내의 농어촌부문 모범사례

- 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
-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
-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
- 칠곡군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 ○ 100세 시대 대비 외국의 농어촌부문 모범사례

- 일본: ① 아이치현(愛知縣) 아스케정(足助町)의 하쿠넨소우(百年草)와

아스케야시키: 농촌관광과 노인복지의 접목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대표사례임. ② 도쿠시마현(德島縣) 가미카쓰정(上勝町)의 이로도리사업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읍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제3섹터 방식의 이로도리 회사에서 감잎, 밤잎, 단풍잎, 동백잎 등을 10매씩 포장한 생산품을 고급요정, 음식점,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사업임. ③ 니가타현(新潟縣) 나가오카시(長岡市)에서는 노동후생성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서포트센터(support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④ 오키나와(沖繩) 및 나가노현(長野縣)의 생활습관 개선운동

- 미국: 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②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A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캐나다: 켈거리시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마을과 도시 수준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를 평가하여 노인과 그 가족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임.
- 프랑스: ① 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2007~2009), ② 중간적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택유지와 시설입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소규모의 시설
- 독일: 세대 간 통합주거 추진
- EU의 노인인력 고용정책: EU 가맹국들은 「임금보조와 기타 고용장려제도», 「조기퇴직을 배제하고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연금과 사회보장개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직업훈련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제 5 장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 1. 기본방향

- 첫째,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함. 근로능력이 있는 농어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농어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함.
  - －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복지정책을 농어촌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책과정에서도 농어촌복지정책 핵심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 －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변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 100세 시대에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함.

-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령 농업인을 더 이상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됨. 조만간 도래할 100세 시대에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고령 농업인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령통합 및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통합과 균형,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연령차별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야 했다면,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이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함.
  - 연령통합의 효과로는 생애주기의 유연화(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연령차별주의의 완화, 성장 동력의 유지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계층·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셋째, 생애주기별 특성화 및 세대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 100세 시대 논의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층, 전체 세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령별, 세대별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영역은 취약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서 100세 시대에는 생애 전주기를 총 망라함.
  - 모든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별로 특성화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함.
  - 65세 이상 노인들도 연령, 건강 수준, 경제활동 지속 의사 등에 따라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 개선방안

### 2.1.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 2.1.1.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도입

-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 － 태아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평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보장
  - － 해당지역 보건소가 주민 개개인별로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하며,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
  - － 도서지방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원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시 주민건강을 관리함.
  - －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하여 치료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임.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농어업인 중 특수 환경(축산, 시설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시설농업 등은 유기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비염, 결막염, 천식, 기관지염 등) 유발 가능성이 높음.
-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제도와 연계하여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되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농어업 관련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정부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함.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유해인자(석면, 벤젠 등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즉,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함.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 177종: 화학적 인자 163종(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13종, 금속가공유), 분진 6종(곡물·광물성·면·나무·용접·유리섬유 분진), 물리적 인자 8종(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2.1.2.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 독거노인들 특히, 남자 노인들은 식사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감안하여 식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독거노인 스스로가 전기밥솥이나 압력 밥솥 등을 사용하여 밥을 짓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찬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행의 반찬배달 서비스는 개별 수혜자의 건강, 식성, 영양상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 지원은 개별 수혜자의 질병, 치아 및 영양 상태, 식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이 되어야만 함.
- 그리고 특히 남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반찬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이나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체가 허약하여 시장보기 및 요리가 곤란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의 이웃에게 실비와 약간의 봉사료를 지불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표준식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여 배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독거노인은 영양식의 섭취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영양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농번기에는 마을공동식당을 운영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2.2. 소득 및 소비 부문

### 2.2.1.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

-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토록 함.
  -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을 알리도록 함.
  -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뒷면, 별지 안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 －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크레딧’은 육아기간은 최대 50개월, 군복무는 최대 6개월임.
  - －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함.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농어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함.
  - － 독일과 일본은 여성농어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여성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2.2.2. 농지연금의 개선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함.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2.3. 일자리 부문

### 2.3.1.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

- 고령친화 농업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함.
-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함.
-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의 필요성

- 농업부문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룰수 있음. 즉,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적정 수준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알맞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도 절감시킬 수 있음.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유희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고령친화 농업의 목표
- 노인들에게 알맞은 농업부문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함.
  -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함.
-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
- 고령친화 농업의 예
-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예: 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양잠, 양봉 등) 및 경량채소(예: 대파, 고추, 마늘 등)은 고령농업인에 적합하며, 농업경영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관광농원, 전통식품가공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치

### 2.3.2.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 －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창업 상담,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 및 기술 중개, 인재 육성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네트워크화를 유도
  - － 농업·농촌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농어촌 공동체회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지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조직 및 회계 관리, 홍보 등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
-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관련 사업의 연계 지원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과 같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지원
  - －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는 농업경영체, 주민협의체 등이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발전되도록 유도
  - － 기존 주민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의 법인화를 유도
- 귀농·귀촌 인력 활용
  - － 귀농·귀촌 인력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 웰촌포털([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귀농·귀촌인력의 기획·경영·재무회계·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

## 2.4. 여가 및 문화 활동 부문

### 2.4.1. 농어촌 노인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

-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이 있음.
-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미설치 시군에는 가급적 설치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교통편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농어촌 재가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농어촌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생활권역별로 경로당 통합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중간 형태의 거점 경로당으로 육성
  -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완
  -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리모델링
  -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화 방안 모색
  - 보건소, 농협, 자원봉사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2.4.2.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 농어촌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 교과부의 방과 후 교육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예술꽃 씨앗학교’를 농어촌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전교생에게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농어촌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1인 1예능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 예술강사를 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기자재를 지원함.
  -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술꽃 씨앗학교 25개교를 지원(학교당 1억원 지원)
  - 향후 농어촌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5. 보육 및 교육 부문

### 2.5.1.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의 확대

-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
- 도시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어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농어촌 유학 제도를 활성화
  - 2010년에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원 대상을 5개소(1개소 당 30백만원)로 확대하였음.
  -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 농어촌 유학 활동가 대상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체험 시범학교 팜 스쿨(Farm-School) 운영 확대



- 도시학교와 농어촌체험마을 간의 1교 1촌 결연을 맺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된 농어촌체험학습을 운영함.
- 교과부의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연구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 교내 텃밭 공간 조성 및 운영, 농촌 체험마을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마을 복지농장의 조성

- 고령 농업인들의 공동 영농작업장으로 활용
- 도시 초·중학생들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 및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2.5.2. 노후생활 설계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설계 교육 추진

- 농어촌 학생 대상 미래 설계교육: 바람직한 인구관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형성
- 농어촌 청장년층 및 중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설계 교육: 생애주기에 맞추어 재무 및 비 재무 영역의 균형 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은퇴기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는 은퇴설계 교육을 실시

○ 노후생활 설계 교육의 추진 방식

- 기초교육과정과 중급 및 고급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교육의 형식: 집합교육, 찾아가는 면담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을 활용
- 현재 대학, 노인복지기관, 국민연금공단, 종교기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노후생활 설계 교육 강사진의 확보: 은퇴한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 귀농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노후생활 설계 교과과정 및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2.6. 주거 부문

### 2.6.1.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활성화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은 김제시, 의령군, 서천군,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 중임.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은 유사 가족적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의 주거공간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주거와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가족적 생활 형태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그룹홈의 운영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식비 등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비용은 구성원들의 공동부담 또는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 지원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음.
- 김제시나 의령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그룹홈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할 수 있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사업은 전국 사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룹홈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가 필요함.
-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의 경우 현재는 특별한 규칙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회칙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그룹홈의 일원이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예를 들면, 김제시와 의령군)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재원부담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이것은 이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에게만 맡겨진 데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연계가 필요함.

## 2.6.2.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화

-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 도농교류 시설·프로그램과 연계한 귀농·귀촌 교육
  - 농업체험장, 직판장 등 도농교류시설과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 귀농·귀촌 집단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

## ○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 소규모 주거지 공급사업 추진: 대단위 신규 주거지를 공급하는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등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방식만이 아니라 5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를 보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둬.
- 소규모 주거지는 농어촌 마을과 접한 곳에 조성하며, 단지 조성과의 연계하여 기존 마을 생활환경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이주 초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재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
- 빈집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빈집 등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계약을 대행함으로써 빈집 임대·거래의 공공성을 보증함.

## ○ 귀농·귀촌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도 제고

- 귀농·귀촌에 대한 부부 및 가족의 의견 일치가 중요함.
- 귀농·귀촌인 배우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 확대

- 귀농·귀촌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운영
- 귀농·귀촌을 통한 농어촌 발전의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발전시킴.
-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지역 역량강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 귀촌인 대상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화

- 귀농인 대상 영농교육에 치중한 현행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개선하도록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각종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지자체에서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촌인 대상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
- 귀농·귀촌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귀농·귀촌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농업 부문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농어촌에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조직이 농어촌 공동체회사나, 사회적 기업 관련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멘토링 강화
- 새로 이주한 도시민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귀농·귀촌인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 귀농·귀촌인들 간 교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 단위로 구성
  - 농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려는 귀농인을 대상으로는 선진농가 및 선배 귀농인에게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실습 위주 교육을 지자체 단위로 확대
-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화합 프로그램 개발
- 진안의 마을 만들기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의 사회적 친밀도를 제고함.
  -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지역사회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 － 지자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평가 시에도 귀농·귀촌인 유치 및 활용 실적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토록 함.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도 귀농·귀촌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각종 사업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 제 6 장

---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②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④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의 대응 방안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임.
-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농어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 권역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각 각 125명씩 총 500명임.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유형별 분포는 대도시근교 농촌이 125명(25.0%), 평야지역 농촌이 176명(35.2%), 중·산간지역 농촌이 74명(14.8%), 어촌이 125명(25.0%)임.
- 성별 분포는 남자가 229명(45.8%), 여자가 271명(54.2%)임.
-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123명(24.6%), 40대가 118명(23.6%), 50대가 123명(24.6%), 60대 이상이 136명(27.2%)임.

## □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 ○ 사회적 영향

-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될 것됨.
- 농어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농어촌 학교교육의 수요는 감소하나 사회교육의 요구가 증가할 것임.
- 100세 시대에는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
- 길어진 노후생활로 인해서 가족 내부의 갈등이 증가할 것임.

### ○ 경제적 영향

- 농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임.
-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친화 농업이 부각될 것임.
- 농어촌에서의 농업관련 산업분야 및 비농업분야 종사 인구의 증가로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가 확대될 것임.
- 향후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2·3차 산업 부문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임.
- 농어촌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농어촌관광은 더욱 확대될 것임.
- 귀농·귀촌자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농촌에서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이 강화될 것임.



## □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 ○ 100세 시대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인식

- ‘귀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의견은 32.4%, ‘그저 그렇다(보통)’ 32.0%, ‘축복이 아니다’는 35.6%로 나타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가 45.1%,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에’가 25.9%,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7.3%순이었음.
-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가 35.4%, ‘질병으로 고통스런 삶이 싫어서’가 21.9%,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 18.0%순이었음.

### ○ 100세 시대에 농어촌주민이 희망하는 수명

-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4%, ‘70~79세’가 23.4%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 농어촌주민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

## □ 노후생활 준비

### ○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의 고민 문제

-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가장 고민이 될 문제는 건강(58.6%), 생활비(30.4%) 순이었음.

### ○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49.2%, ‘당장의 생계유

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21.0%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70.2%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 ○ 국가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

- '귀하는 우리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21.6%)보다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39.0%)가 더 많았음.

### □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 ○ 종합건강검진 수진 시기

-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0.4%가 2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5.6%이었음.

#### ○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 '귀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가장 이용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건강 및 질병 상담·관리' 35.8%, '정기적인 건강검진' 23.0%, '운동 처방' 12.4%, '식생활 관리' 12.0% 순이었음.

#### ○ 평소 운동 빈도

- '귀하는 평소에 운동(하루 20분 이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3회'가 16.8%로 그 다음이었음.

#### ○ 노후에 건강 악화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안

- ‘귀하는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살겠다’ 36.0%, ‘부인(또는 남편)에게 의지하겠다’ 26.4%, ‘그때 가봐야 안다’ 19.8% 순이었음.

○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건강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2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41.4%)가 더 많았음.

## □ 소득 및 소비

○ 월 평균 노후생활비

-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개인은 96만 6천원, 부부는 174만 6천원이고,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개인은 145만원, 부부는 248만 2천원이었음.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 여부

-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은 보험(70.2%), ‘계속 일을 함’(64.6%), 저축(63.8%), 공적 연금(50.0%) 순이었음.
-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대책은 저축(78.0%), ‘계속 일을 함’(70.0%), ‘보험’(63.8%), ‘공적 연금’(54.4%), ‘개인연금’(50.2%) 순이었음.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의 충분 정도

- ‘현재 귀택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제적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39.4%)보다 ‘부족하다’(53.2%)가 많았음.

## ○ 농지연금 인지 정도

-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7.4%는 인지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42.6%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는 노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지연금제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찬성한다’(51.4%)가 ‘반대한다’(8.6%)보다 훨씬 높았음.

## ○ 10년 후 가정 경제생활 수준

-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개선)’ 35.4%,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유지)’ 49.8%, ‘나빠질 것이다(악화)’ 14.8%이었음.

## ○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25.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40.4%)가 훨씬 더 많았음.

## □ 일자리

## ○ 노후 노동 희망 여부

- ‘귀하는 노후(65세 이상)에도 일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2%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 평균 노동 연령은

71.6세이었음.

-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 ‘귀하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근로소득 활동을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65~69세’가 30.8%, ‘70~74세’가 29.6%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 하고 있다’(24.4%)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38.2%)가 많았음.

## □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재 참여 중인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62.4%), ‘취미활동’(36.8%),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26.8%) 순이었음.
- 노후생활을 위한 신규 참여 희망 여가 및 문화 활동
  - 노후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친목활동’(71.4%), ‘취미활동’(69.0%),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47.0%) 순이었음.
-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
  - ‘귀하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간 부족’(34.0%), ‘비용 부담’(25.6%) 순이었음.

- 여가 및 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 ‘귀하는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준비를 하고 있다’(16.0%)보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52.2%)가 훨씬 많았음.

## □ 기타

-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건강관리교육’(77.2%), ‘경제교육’(41.8%), ‘여가 및 문화교육’(27.8%), ‘노후준비교육’(25.0%) 순이었음.
-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 ‘귀하께서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상담서비스’(29.8%), ‘방문교육’(26.2%), ‘집합교육’(21.4%) 순이었음.
- 100세 시대에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1순위 및 2순위 합계)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74.2%),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49.6%),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32.2%) 순이었음.

## □ 100세 시대 대비 관련 농어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 복지 및 고령화 관련 기본계획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문제점: ①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음. ②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았음.
  
-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관련
  -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농어촌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일자리 마련 관련
  - 이 자리 마련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음. 그리고 1년 중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임.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 농촌정책과의 차별

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 □ 100세 시대 대비 관련 국내외의 농어촌부문 모범사례

### ○ 국내의 모범사례

- 김제시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그룹홈)
-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
- 천안시 아우내은빛복지관
- 칠곡군 차차차 어르신 건강교실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 ○ 외국의 모범사례

- 일본: ① 아이치현(愛知縣) 아스케정(足助町)의 하쿠넨소우(百年草)와 아스케야시키: 농촌관광과 노인복지의 접목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대표사례임. ② 도쿠시마현(德島縣) 가미카쓰정(上勝町)의 이로도리사업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읍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제3섹터 방식의 이로도리 회사에서 감잎, 밤잎, 단풍잎, 동백잎 등을 10매씩 포장한 생산품을 고급요정, 음식점,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사업임. ③ 니가타현(新潟縣) 나가오카시(長岡市)에서는 노동후생성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서포트센터(support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④ 오키나와(沖繩) 및 나가노현(長野縣)의 생활습관 개선운동
- 미국: 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Successful Aging Initiative: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②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A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캐나다: 켈거리시의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EFCP: The Elder Friendly Communities Project): 마을과 도시 수준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의 실태를 평가하여 노인과 그 가족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사업임.

- 프랑스: ① 노년 잘 보내기 국가계획(2007~2009), ② 중간적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택유지와 시설입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소규모의 시설
- 독일: 세대 간 통합주거 추진
- EU의 노인인력 고용정책: EU 가맹국들은 「임금보조와 기타 고용장려제도», 「조기퇴직을 배제하고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연금과 사회보장개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직업훈련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의 기본방향

-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함.
  -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복지정책을 농어촌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100세 시대에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함.
  -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연령통합 및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통합과 균형, 파트너십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연령차별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야 했다면,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이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함.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계층·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생애주기별 특성화 및 세대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 100세 시대 논의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층, 전체 세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령별, 세대별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65세 이상 노인들도 연령, 건강 수준, 경제활동 지속 의사 등에 따라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정책 개선방안

- 상시적인 농어촌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 태아부터 사망 시까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보장
  - 도서지방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원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시 주민건강을 관리함.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 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

## □ 소득 및 소비 부문 정책 개선방안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
  -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내역을 알리도록 함.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함.

#### ○ 농지연금의 개선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일자리 부문 정책 개선방안

#### ○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

-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함.
-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
- 고령친화 농업의 예: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예: 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양잠, 양봉 등) 및 경량채소(예: 대파, 고추, 마늘 등)은 고령농업인에

적합하며, 농업경영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관광농원, 전통 식품가공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 ○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관련 사업의 연계 지원
- 귀농·귀촌 인력 활용: 귀농·귀촌 인력이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사회적 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 여가 및 문화 활동 부문 정책 개선방안

#### ○ 농어촌 노인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

-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미설치 시군에는 가급적 설치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어촌 경로당 운영 활성화

#### ○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 농어촌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 ‘예술꽃 씨앗학교’를 농어촌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 보육 및 교육 부문 정책 개선방안

#### ○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의 확대

-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
- 농어촌 체험 시범학교 팜 스쿨(Farm-School) 운영 확대
- 마을 복지농장의 조성

## ○ 노후생활 설계 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설계 교육 추진
- 노후생활 설계 교육의 추진 방식

## □ 주거 부문 정책 개선방안

##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활성화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룹홈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할 수 있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은 전국 사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그룹홈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홍보가 필요함.
-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의 경우 현재는 특별한 규칙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회칙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그룹홈의 일원이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예를 들면, 김제시와 의령군)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재원부담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이것은 이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에게만 맡겨진 데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연계가 필요함.

## ○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화

- －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
- －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 － 귀농·귀촌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도 제고
- －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 확대
- － 귀촌인 대상 농어촌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화
- － 귀농·귀촌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 －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멘토링 강화
- －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의 화합 프로그램 개발
- －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 결론

- 본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의 기본방향으로 ①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함. ② 연령통합 및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③ 생애주기별 특성화 및 세대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정책 개선방안은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소득 및 소비, 일자리, 여가 및 문화 활동, 보육 및 교육, 주거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상시적인 농어촌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체도의 도입, ③ 농어촌 독거노인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하였음.
- 소득 및 소비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개선과 농

지연금의 개선을 제시하였음.

- 일자리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과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을 제시하였음.
- 여가 및 문화 활동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농어촌 노인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음.
- 보육 및 교육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초·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의 확대와 노후생활 설계 교육을 제시하였음.
- 주거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의 활성화와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화를 제시하였음.
- 본 조사연구의 기본 설계는 횡단적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부록 1

###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참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수행은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어촌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동필



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SQ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대도시 근처 농어촌(광역시와 접경) ② 평야지역 농촌 ③ 중·산간 지역 농촌 ④ 어촌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4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b>만 20세 이하 면접중단</b>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___월 ___일 ___시 ___분경
응답자 주소			
연락처 (유선)	☎ ( ) -	핸드폰 (무선)	H.P (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V 확인	

※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해주십시오.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고보다는 최빈 사망 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A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 준비**

A1. 귀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축복이다  A1-1번으로    ② 축복이다  A1-1번으로  
 ③ 그저 그렇다  A2번으로    ④ 축복이 아니다  A1-2번으로  
 ⑤ 전혀 축복이 아니다  A1-2번으로

A1-1. (A1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  
 ②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③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④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기타 (구체적으로: )

A1-2. (A1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  
 ② 노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③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④ 국가나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
- ⑥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에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A2. 100세 시대에 귀하께서 희망하는 자신의 수명은 몇 세 정도입니까? (     )

- ① 100세 이상    ② 90~99세    ③ 80~89세    ④ 70~79세    ⑤ 69세 이하

A3.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귀하에게 가장 고민이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① 건강                      ② 생활비                      ③ 일자리                      ④ 여가시간 활용
- ⑤ 배우자와의 관계    ⑥ 자녀와의 관계                      ⑦ 친구와의 관계
- ⑧ 외로움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A4. 귀하는 우리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준비를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 ⑤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

A5.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     )

- ①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②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③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 ④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 B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B1.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① 1년 이내                      ② 1~2년 이내                      ③ 2~4년 이내  
 ④ 4년 이전                      ⑤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B2. 귀택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십니까? ( )

- ① 전혀 이용하지 않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6회  
 ⑤ 월 7회 이상

B3. 귀하의 건강보험(의료보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④ 의료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대상이다  
 ⑤ 의료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대상이다  
 ⑥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대상이다  
 ⑦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⑧ 기타 (구체적으로: )

B4. 귀택은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예를 들면, 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셨습니다? ( )

- ① 가입하였다  B4-1번으로                      ② 가입하지 않았다  B5번으로

B4-1. (B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택에서 민간 건강보험(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



B9. 귀하는 건강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 C 소득 및 소비

C1 - C2.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

	C1. 최소 생활비 1)	C2. 적정 생활비 2)
개인 기준	월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부부 기준	월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월 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 **최소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2) **적정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함.

C3. 현재 귀댁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 노후대책을 강화하고 싶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체크)**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책	현재 마련 중	앞으로 강화 희망
(1) 저축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2) 보험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3) 농지 매입 및 임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4)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5) 개인연금 (은행, 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민간 연금)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6) 각종 계 (계모임)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7) 주택 구입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8) 주식, 증권 구입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9) 계속 일을 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10) 주택연금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11)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12) 기업퇴직연금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13) 기타 (구체적으로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14) 아무 대책도 없음 <b>C3-1번으로</b>	① 그렇다 ② 아니다	

C3-1. (C3에서 현재 '아무 대책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아무런 경제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소득이 낮아서 ② 급하게 돈을 쓸 곳이 많아서  
 ③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④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⑤ 아직 자식/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⑥ 질병을 앓고 있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C4. 현재 귀댁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제적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
- ① 충분할 것이다 ② 충분하지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대체로 부족할 것이다 ④ 매우 부족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예상 안 됨)
- C5.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지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 ① 매우 잘 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 C6. 귀하께서는 노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지연금제도를 지금**(2011년 상반기 전국 가입자: 775명)**보다 확대**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 C7.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 C8. 귀하는 **현재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충분히 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D3. 귀하는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충분히 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거의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E      여가 및 문화 활동**

E1. 현재 귀하께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떤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체크 표시)

구 분	노후생활을 위해서 선호하는 여가문화 활동	
	현재 참여 중	앞으로 신규로 참여 희망
(1) 취미활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2) 자원봉사활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3)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4) 친목활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5)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6) 기타 (구체적으로: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희망 ② 희망안함
(7) 아무런 문화여가 활동이 없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2. 귀하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시간 부족                  ② 관심 부족                  ③ 정보 부족
- ④ 비용 부담                 ⑤ 교통 불편
- ⑥ 문화여가 활동의 종류 부족                  ⑦ 기타 (구체적으로:                    )

E3. 귀하는 여가문화 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충분히 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못하고 있다      ⑤ 전혀 못하고 있다

## F 기타

F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 100세 시대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건강관리교육      ② 경제교육      ③ 취업 및 직업교육  
④ 여가 및 문화교육      ⑤ 일반교양교육      ⑥ 노후준비교육  
⑦ 한글교육      ⑧ 컴퓨터교육      ⑨ 운전교육  
⑩ 농기계교육      ⑪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교육  
⑫ 자원봉사교육      ⑬ 기타 (구체적으로 : )

F2. 귀하께서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

- ① 집합교육      ② 방문교육      ③ 상담서비스      ④ 학습조직(동아리)  
⑤ 인터넷 및 방송      ⑥ 기타(구체적으로: )

F3.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만 한다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②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③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④ 평생교육 및 재취업 교육  
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 ⑥ 노인이 생활하기 편안한 교통/주거환경 조성
- ⑦ 노후준비 마련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F4.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놓어준 주민을 위해 지원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G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 G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 G2.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 G3.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 ① 초(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 ④ 전문대졸(예정)                        ⑤ 4년제 대학졸(예정)
  - ⑥ 대학원 재학(수료) 이상
- G4. 귀하의 나이(연세)는 몇 세입니까?                    만 (    )세
- G5.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① 농림어업                                ② 관리·전문직                        ③ 사무직

- ④ 자영업                      ⑤ 서비스·판매직                      ⑥ 생산·기능·노무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구체적으로:                      )

G6. 작년(2010년)에 귀댁의 총 가구소득(농어업소득, 이전소득, 농어업 이외 근로소득 등을 모두 포함)은 얼마나 됩니까? (    )

- ① 500만원 미만                              ② 500만원~1,000만원 미만  
 ③ 1,000만원~2,000만원 미만              ④ 2,000만원~3,000만원 미만  
 ⑤ 3,000만원~4,000만원 미만              ⑥ 4,000만원~5,000만원 미만  
 ⑦ 5,000만원 이상

♪ 바쁘신 가운데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 연령대 및 직업별 농어촌주민 설문조사 결과

부표 1. 100세까지 사는 현상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축복이다	보통이다	축복 아니다	전체	평균 <sup>a</sup>
연령	전 체	32.4	32.0	35.6	100.0	48.55
	20~30대	39.0	38.2	22.8	100.0	53.46
	40대	34.7	35.6	29.7	100.0	51.48
	50대	30.9	34.1	35.0	100.0	48.37
	60대 이상	25.7	21.3	52.9	100.0	41.73
직업	농림어업	37.4	23.6	39.0	100.0	50.61
	비 농림어업	30.8	34.7	34.5	100.0	47.88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2.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나날이 발전하는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장수는 축복이기 때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령	전 체	45.1	25.9	17.3	11.1	0.6
	20~30대	58.3	18.8	12.5	8.3	2.1
	40대	41.5	31.7	19.5	7.3	0
	50대	47.4	28.9	15.8	7.9	0
	60대 이상	28.6	25.7	22.9	22.9	0
직업	농림어업	54.3	17.4	10.9	17.4	0
	비 농림어업	41.4	29.3	19.8	8.6	0.9

부표 3.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	노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에	국가나 사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전	체	35.4	21.9	18.0	12.9	10.7	1.1
연령	20~30대	10.7	28.6	28.6	21.4	10.7	0.0
	40대	34.3	17.1	17.1	11.4	17.1	2.9
	50대	30.2	20.9	16.3	20.9	9.3	2.3
	60대 이상	48.6	22.2	15.3	5.6	8.3	0.0
직업	농림어업	52.1	18.8	10.4	14.6	4.2	0.0
	비 농림어업	29.2	23.1	20.8	12.3	13.1	1.5

부표 4. 100세 시대 희망수명

단위: %

구 분		100세 이상	90~99세	80~89세	70~79세	69세 이하	전체
전	체	3.6	11.0	59.4	23.6	2.4	100.0
연령	20~30대	4.1	10.6	59.3	20.3	5.7	100.0
	40대	4.2	11.9	59.3	22.0	2.5	100.0
	50대	3.3	10.6	59.3	25.2	1.6	100.0
	60대 이상	2.9	11.0	59.6	26.5	0.0	100.0
직업	농림어업	2.4	17.9	59.3	20.3	0.0	100.0
	비 농림어업	4.0	8.8	59.4	24.7	3.2	100.0

부표 5. 100세 시대 노후생활에서 고민이 될 문제

단위: %

구 분	건강	생활비	외로움	일자리	여가 시간 활용	자녀 와의 관계	배우자 와의 관계	친구 와의 관계	모름· 무응 답
전 체	58.6	30.2	5.6	2.0	1.8	1.2	0.2	0.2	0.2
연 령	20~30대	57.7	28.5	6.5	1.6	3.3	2.4	0.0	0.0
	40대	53.4	32.2	8.5	2.5	2.5	0.0	0.0	0.8
	50대	55.3	34.1	4.1	4.1	1.6	0.0	0.0	0.0
	60대 이상	66.9	26.5	3.7	0.0	0.0	2.2	0.7	0.0
직 업	농림어업	62.6	24.4	5.7	2.4	1.6	3.3	0.0	0.0
	비 농림어업	57.3	32.1	5.6	1.9	1.9	0.5	0.3	0.3

부표 6. 100세 시대 대비 국가차원의 준비 정도

단위: %

구 분	잘함	보통	잘못함	계	평균 <sup>a</sup>	
전 체	21.6	39.4	39.0	100.0	44.15	
연 령	20~30대	13.0	42.3	44.7	100.0	38.62
	40대	12.7	45.8	41.5	100.0	41.10
	50대	26.0	39.0	35.0	100.0	46.75
	60대 이상	33.1	31.6	35.3	100.0	49.45
직 업	농림어업	30.1	45.5	24.4	100.0	51.42
	비 농림어업	18.8	37.4	43.8	100.0	41.78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7. 노후생활준비시기

단위: %

구 분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노후생활 준비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별 다른 준비를 못했다	당장의 생계가 급해 노후생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전체
전	체	10.6	19.2	49.2	21.0	100.0
연령	20~30대	4.9	20.3	52.8	22.0	100.0
	40대	11.0	24.6	50.8	13.6	100.0
	50대	11.4	20.3	51.2	17.1	100.0
	60대 이상	14.7	12.5	42.6	30.1	100.0
직업	농림어업	6.5	18.7	50.4	24.4	100.0
	비 농림어업	11.9	19.4	48.8	19.9	100.0

부표 8. 최근 종합건강검진 받은 시기

단위: %

구 분		1년 이내	1~2년 이내	2~4년 이내	4년 이전	종합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전체
전	체	33.0	37.4	9.6	4.4	15.6	100.0
연령	20~30대	18.7	31.7	6.5	6.5	36.6	100.0
	40대	27.1	39.0	7.6	8.5	17.8	100.0
	50대	43.9	38.2	8.9	1.6	7.3	100.0
	60대 이상	41.2	40.4	14.7	1.5	2.2	100.0
직업	농림어업	30.9	47.2	12.2	0.8	8.9	100.0
	비 농림어업	33.7	34.2	8.8	5.6	17.8	100.0

부표 9. 한 달 의료기관 이용 빈도

단위: %

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월 1~2회	월 3~4회	월 5~6회	월 7회 이상	전체
전 체		33.2	51.4	8.0	3.4	4.0	100.0
연령	20~30대	49.6	47.2	2.4	0.8	0.0	100.0
	40대	50.0	47.5	1.7	0.0	0.8	100.0
	50대	25.2	59.3	8.9	4.9	1.6	100.0
	60대 이상	11.0	51.5	17.6	7.4	12.5	100.0
직업	농림어업	17.9	60.2	8.9	4.9	8.1	100.0
	비 농림어업	38.2	48.5	7.7	2.9	2.7	100.0

부표 10. 건강보험 유형

단위: %

구 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	의료급여2종 (의료비 일부부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모름/ 무응답	전체
전 체		64.8	20.6	13.0	0.8	0.4	0.2	0.2	100.0
연령	20~30대	54.5	22.8	19.5	1.6	0.0	0.8	0.8	100.0
	40대	67.8	22.0	9.3	0.8	0.0	0.0	0.0	100.0
	50대	71.5	19.5	8.9	0.0	0.0	0.0	0.0	100.0
	60대 이상	65.4	18.4	14.0	0.7	1.5	0.0	0.0	100.0
직업	농림어업	64.2	17.1	17.9	0.8	0.0	0.0	0.0	100.0
	비 농림어업	65.0	21.8	11.4	0.8	0.5	0.3	0.3	100.0

부표 11.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구 분		가입하였다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 체		71.8	28.2	100.0
연령	20~30대	85.4	14.6	100.0
	40대	86.4	13.6	100.0
	50대	79.7	20.3	100.0
	60대 이상	39.7	60.3	100.0
직업	농림어업	46.3	53.7	100.0
	비 농림어업	80.1	19.9	100.0

부표 12.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 보험 가입 이유

단위: %

구 분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의 서비스가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가족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전 체		81.1	11.4	3.9	3.3	0.3
연령	20~30대	84.8	10.5	3.8	1.0	0.0
	40대	85.3	9.8	2.9	2.0	0.0
	50대	75.5	10.2	4.1	9.2	1.0
	60대 이상	75.9	18.5	5.6	0.0	0.0
직업	농림어업	66.7	17.5	7.0	8.8	0.0
	비 농림어업	83.8	10.3	3.3	2.3	0.3

부표 13. 현재의 건강 상태

단위: %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49.6	38.0	12.4	100.0	60.40
연령	20~30대	62.6	31.7	5.7	100.0	66.46
	40대	61.0	36.4	2.5	100.0	66.53
	50대	47.2	39.8	13.0	100.0	59.35
	60대 이상	30.1	43.4	26.5	100.0	50.55
직업	농림어업	39.0	43.9	17.1	100.0	56.10
	비 농림어업	53.1	36.1	10.9	100.0	61.80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14.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단위: %

구 분		건강 및 질병 상담 ·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	운동 처방	식생활 관리	건강 교육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방문 간호 서비스	약물 오용 관련 교육 · 상담	걷기 운동	없다	모름 · 무응답
전 체		35.8	23.0	12.4	12.0	10.6	4.4	0.8	0.4	0.2	0.2	0.2
연령	20~30대	28.5	21.1	19.5	13.8	9.8	5.7	0.8	0.0	0.0	0.8	0.0
	40대	37.3	21.2	13.6	15.3	6.8	4.2	0.8	0.0	0.0	0.0	0.8
	50대	32.5	26.8	8.9	10.6	13.0	7.3	0.8	0.0	0.0	0.0	0.0
	60대 이상	44.1	22.8	8.1	8.8	12.5	0.7	0.7	1.5	0.7	0.0	0.0
직업	농림어업	46.3	23.6	4.9	5.7	15.4	1.6	2.4	0.0	0.0	0.0	0.0
	비 농림어업	32.4	22.8	14.9	14.1	9.0	5.3	0.3	0.5	0.3	0.3	0.3

부표 15. 평소 운동 빈도

단위: %

구 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회 이상	전체
전 체		38.2	16.2	15.0	16.8	13.8	100.0
연 령	20~30대	34.1	18.7	13.0	20.3	13.8	100.0
	40대	38.1	16.1	22.9	13.6	9.3	100.0
	50대	38.2	19.5	15.4	16.3	10.6	100.0
	60대 이상	41.9	11.0	9.6	16.9	20.6	100.0
직 업	농림어업	39.8	19.5	15.4	11.4	13.8	100.0
	비 농림어업	37.7	15.1	14.9	18.6	13.8	100.0

부표 16. 건강 악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처

단위: %

구 분		노인 복지 시설에 들어 가서 살겠다	부인 (또는 남편) 에게 의지하 겠다	그때 가 봐야 안다	필요한 사람을 구해 지금 처럼 살겠다	자녀 집에 가서 살겠다	형제나 친척 집에 가서 살겠다	형편이 안되면 삶을 마감 하겠다	전체
전 체		36.0	26.4	19.8	10.0	7.2	0.4	0.2	100.0
연 령	20~30대	48.8	17.1	17.9	13.8	2.4	0.0	0.0	100.0
	40대	41.5	27.1	17.8	8.5	4.2	0.0	0.8	100.0
	50대	26.8	33.3	22.0	11.4	6.5	0.0	0.0	100.0
	60대 이상	27.9	27.9	21.3	6.6	14.7	1.5	0.0	100.0
직 업	농림어업	25.2	40.7	14.6	14.6	4.9	0.0	0.0	100.0
	비 농림어업	39.5	21.8	21.5	8.5	8.0	0.5	0.3	100.0

부표 17.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구 분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26.0	32.6	41.4	100.0	44.45
연령	20~30대	23.6	34.1	42.3	100.0	42.89
	40대	33.1	39.0	28.0	100.0	50.85
	50대	27.6	35.8	36.6	100.0	46.54
	60대 이상	20.6	22.8	56.6	100.0	38.42
직업	농림어업	22.0	37.4	40.7	100.0	43.50
	비 농림어업	27.3	31.0	41.6	100.0	44.7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18. 월 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단위: %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6.2	35.6	41.6	11.0	5.6	100.0	96.61
연령	20~30대	6.5	22.8	46.3	14.6	9.8	100.0	110.16
	40대	1.7	27.1	48.3	16.1	6.8	100.0	106.69
	50대	2.4	35.0	44.7	11.4	6.5	100.0	101.30
	60대 이상	13.2	55.1	28.7	2.9	0.0	100.0	71.36
직업	농림어업	4.1	49.6	42.3	4.1	0.0	100.0	83.58
	비 농림어업	6.9	31.0	41.4	13.3	7.4	100.0	100.8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19. 월 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부부 기준)

단위: %

구 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150~ 200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0.6	5.8	23.6	26.0	44.0	100.0	174.60
연령	20~30대	0.0	6.5	13.0	26.0	54.5	100.0	197.56
	40대	0.0	1.7	17.8	21.2	59.3	100.0	194.41
	50대	0.0	0.8	24.4	31.7	43.1	100.0	177.64
	60대 이상	2.2	13.2	37.5	25.0	22.1	100.0	133.90
직업	농림어업	0.0	5.7	32.5	40.7	21.1	100.0	148.70
	비 농림어업	0.8	5.8	20.7	21.2	51.5	100.0	183.05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20.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단위: %

구 분		50만원 미만	50~ 100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150~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1.0	16.0	29.8	27.0	26.2	100.0	145.05
연령	20~30대	0.8	11.4	19.5	30.9	37.4	100.0	165.72
	40대	0.0	6.8	31.4	28.8	33.1	100.0	163.14
	50대	0.0	12.2	30.9	28.5	28.5	100.0	149.51
	60대 이상	2.9	31.6	36.8	20.6	8.1	100.0	106.62
직업	농림어업	0.8	22.8	39.0	28.5	8.9	100.0	120.41
	비 농림어업	1.1	13.8	26.8	26.5	31.8	100.0	153.08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21. 월 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부부 기준)

단위: %

구 분		50~100 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150~ 200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1.4	9.4	17.2	72.0	100.0	248.24
연령	20~30대	0.8	7.3	9.8	82.1	100.0	281.30
	40대	0.0	2.5	11.9	85.6	100.0	282.29
	50대	0.0	7.3	17.1	75.6	100.0	247.64
	60대 이상	4.4	19.1	28.7	47.8	100.0	189.34
직업	농림어업	1.6	9.8	30.1	58.5	100.0	205.28
	비 농림어업	1.3	9.3	13.0	76.4	100.0	262.25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22.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저축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3.8	36.2	100.0
연령	20~30대	68.3	31.7	100.0
	40대	82.2	17.8	100.0
	50대	65.0	35.0	100.0
	60대 이상	42.6	57.4	100.0
직업	농림어업	53.7	46.3	100.0
	비 농림어업	67.1	32.9	100.0



부표 23.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보험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70.2	29.8	100.0
연령	20~30대	84.6	15.4	100.0
	40대	85.6	14.4	100.0
	50대	78.0	22.0	100.0
	60대 이상	36.8	63.2	100.0
직업	농림어업	48.8	51.2	100.0
	비 농림어업	77.2	22.8	100.0

부표 24.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농지 매입 및 임대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17.0	83.0	100.0
연령	20~30대	11.4	88.6	100.0
	40대	21.2	78.8	100.0
	50대	24.4	75.6	100.0
	60대 이상	11.8	88.2	100.0
직업	농림어업	26.0	74.0	100.0
	비 농림어업	14.1	85.9	100.0

부표 25.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공적 연금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50.0	50.0	100.0
연령	20~30대	62.6	37.4	100.0
	40대	57.6	42.4	100.0
	50대	49.6	50.4	100.0
	60대 이상	32.4	67.6	100.0
직업	농림어업	45.5	54.5	100.0
	비 농림어업	51.5	48.5	100.0

부표 26.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개인연금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33.0	67.0	100.0
연령	20~30대	42.3	57.7	100.0
	40대	48.3	51.7	100.0
	50대	32.5	67.5	100.0
	60대 이상	11.8	88.2	100.0
직업	농림어업	13.0	87.0	100.0
	비 농림어업	39.5	60.5	100.0

부표 27.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각종 계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29.4	70.6	100.0
연령	20~30대	23.6	76.4	100.0
	40대	30.5	69.5	100.0
	50대	28.5	71.5	100.0
	60대 이상	34.6	65.4	100.0
직업	농림어업	30.1	69.9	100.0
	비 농림어업	29.2	70.8	100.0

부표 28.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주택 구입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43.0	57.0	100.0
연령	20~30대	42.3	57.7	100.0
	40대	67.8	32.2	100.0
	50대	42.3	57.7	100.0
	60대 이상	22.8	77.2	100.0
직업	농림어업	33.3	66.7	100.0
	비 농림어업	46.2	53.8	100.0

부표 29.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주식/증권 구입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8	93.2	100.0
연령	20~30대	10.6	89.4	100.0
	40대	12.7	87.3	100.0
	50대	3.3	96.7	100.0
	60대 이상	1.5	98.5	100.0
직업	농림어업	0.0	100.0	100.0
	비 농림어업	9.0	91.0	100.0

부표 30.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계속 일을 함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4.6	35.4	100.0
연령	20~30대	74.8	25.2	100.0
	40대	76.3	23.7	100.0
	50대	64.2	35.8	100.0
	60대 이상	45.6	54.4	100.0
직업	농림어업	54.5	45.5	100.0
	비 농림어업	67.9	32.1	100.0

부표 31.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주택 연금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6	93.4	100.0
연령	20~30대	6.5	93.5	100.0
	40대	11.0	89.0	100.0
	50대	8.1	91.9	100.0
	60대 이상	1.5	98.5	100.0
직업	농림어업	0.8	99.2	100.0
	비 농림어업	8.5	91.5	100.0

부표 32.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농지연금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0	94.0	100.0
연령	20~30대	4.1	95.9	100.0
	40대	5.1	94.9	100.0
	50대	8.9	91.1	100.0
	60대 이상	5.9	94.1	100.0
직업	농림어업	4.1	95.9	100.0
	비 농림어업	6.6	93.4	100.0

부표 33.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기업퇴직연금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10.0	90.0	100.0
연령	20~30대	13.8	86.2	100.0
	40대	16.1	83.9	100.0
	50대	10.6	89.4	100.0
	60대 이상	0.7	99.3	100.0
직업	농림어업	0.8	99.2	100.0
	비 농림어업	13.0	87.0	100.0

부표 34. 노후생활 경제 대책 여부 : 아무 대책 없음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7.4	92.6	100.0
연령	20~30대	4.9	95.1	100.0
	40대	0.0	100.0	100.0
	50대	4.1	95.9	100.0
	60대 이상	19.1	80.9	100.0
직업	농림어업	9.8	90.2	100.0
	비 농림어업	6.6	93.4	100.0

부표 35.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저축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78.0	22.0	100.0
연령	20~30대	87.8	12.2	100.0
	40대	83.1	16.9	100.0
	50대	79.7	20.3	100.0
	60대 이상	63.2	36.8	100.0
직업	농림어업	73.2	26.8	100.0
	비 농림어업	79.6	20.4	100.0

부표 36.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보험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63.8	36.2	100.0
연령	20~30대	74.0	26.0	100.0
	40대	76.3	23.7	100.0
	50대	63.4	36.6	100.0
	60대 이상	44.1	55.9	100.0
직업	농림어업	55.3	44.7	100.0
	비 농림어업	66.6	33.4	100.0

부표 37.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농지 매입 및 임대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40.4	59.6	100.0
연령	20~30대	39.0	61.0	100.0
	40대	42.4	57.6	100.0
	50대	45.5	54.5	100.0
	60대 이상	35.3	64.7	100.0
직업	농림어업	40.7	59.3	100.0
	비 농림어업	40.3	59.7	100.0

부표 38.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공적 연금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54.4	45.6	100.0
연령	20~30대	65.9	34.1	100.0
	40대	55.1	44.9	100.0
	50대	51.2	48.8	100.0
	60대 이상	46.3	53.7	100.0
직업	농림어업	49.6	50.4	100.0
	비 농림어업	56.0	44.0	100.0

부표 39.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개인연금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50.2	49.8	100.0
연령	20~30대	61.8	38.2	100.0
	40대	60.2	39.8	100.0
	50대	44.7	55.3	100.0
	60대 이상	36.0	64.0	100.0
직업	농림어업	33.3	66.7	100.0
	비 농림어업	55.7	44.3	100.0

부표 40.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각종 계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39.6	60.4	100.0
연령	20~30대	35.8	64.2	100.0
	40대	40.7	59.3	100.0
	50대	39.0	61.0	100.0
	60대 이상	42.6	57.4	100.0
직업	농림어업	38.2	61.8	100.0
	비 농림어업	40.1	59.9	100.0

부표 41.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주택 구입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49.4	50.6	100.0
연령	20~30대	69.9	30.1	100.0
	40대	55.1	44.9	100.0
	50대	43.9	56.1	100.0
	60대 이상	30.9	69.1	100.0
직업	농림어업	31.7	68.3	100.0
	비 농림어업	55.2	44.8	100.0

부표 42.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주식/증권 구입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21.2	78.8	100.0
연령	20~30대	31.7	68.3	100.0
	40대	17.8	82.2	100.0
	50대	20.3	79.7	100.0
	60대 이상	15.4	84.6	100.0
직업	농림어업	13.0	87.0	100.0
	비 농림어업	23.9	76.1	100.0

부표 43.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계속 일을 함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70.0	30.0	100.0
연령	20~30대	82.1	17.9	100.0
	40대	74.6	25.4	100.0
	50대	71.5	28.5	100.0
	60대 이상	53.7	46.3	100.0
직업	농림어업	56.9	43.1	100.0
	비 농림어업	74.3	25.7	100.0

부표 44.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주택 연금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27.0	73.0	100.0
연령	20~30대	32.5	67.5	100.0
	40대	26.3	73.7	100.0
	50대	27.6	72.4	100.0
	60대 이상	22.1	77.9	100.0
직업	농림어업	19.5	80.5	100.0
	비 농림어업	29.4	70.6	100.0

부표 45.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농지연금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25.0	75.0	100.0
연령	20~30대	19.5	80.5	100.0
	40대	27.1	72.9	100.0
	50대	29.3	70.7	100.0
	60대 이상	24.3	75.7	100.0
직업	농림어업	26.8	73.2	100.0
	비 농림어업	24.4	75.6	100.0

부표 46. 노후생활 강화 희망 경제 대책 : 기업퇴직연금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27.0	73.0	100.0
연령	20~30대	32.5	67.5	100.0
	40대	28.0	72.0	100.0
	50대	28.5	71.5	100.0
	60대 이상	19.9	80.1	100.0
직업	농림어업	17.1	82.9	100.0
	비 농림어업	30.2	69.8	100.0



부표 47. 경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소득이 낮아서	아직 자식·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급하게 돈을 쓸 곳이 많아서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전 체	32.4	24.3	21.6	10.8	10.8	
연령	20~30대	33.3	66.7	0.0	0.0	0.0
	50대	20.0	40.0	0.0	20.0	20.0
	60대 이상	34.6	11.5	30.8	11.5	11.5
직업	농림어업	16.7	41.7	25.0	8.3	8.3
	비 농림어업	40.0	16.0	20.0	12.0	12.0

부표 48. 경제 대책으로 노후생활 대비 충분성

단위: %

구 분	충분	부족	모름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39.4	53.2	7.4	100.0	43.27	
연령	20~30대	39.8	49.6	10.6	100.0	43.94
	40대	50.8	44.1	5.1	100.0	49.41
	50대	43.1	49.6	7.3	100.0	46.20
	60대 이상	25.7	67.6	6.6	100.0	34.64
직업	농림어업	37.4	54.5	8.1	100.0	42.48
	비 농림어업	40.1	52.8	7.2	100.0	43.52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49. 농지연금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 분	인지	비인지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57.4	42.6	100.0	41.15	
연령	20~30대	47.2	52.8	100.0	34.96
	40대	56.8	43.2	100.0	41.95
	50대	65.9	34.1	100.0	46.34
	60대 이상	59.6	40.4	100.0	41.36
직업	농림어업	71.5	28.5	100.0	50.41
	비 농림어업	52.8	47.2	100.0	38.13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50. 농지연금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찬성	보통	반대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51.4	40.0	8.6	100.0	62.35
연령	20~30대	49.6	39.8	10.6	100.0	60.77
	40대	54.2	40.7	5.1	100.0	63.98
	50대	62.6	28.5	8.9	100.0	65.65
	60대 이상	40.4	50.0	9.6	100.0	59.38
직업	농림어업	40.7	43.9	15.4	100.0	58.94
	비 농림어업	54.9	38.7	6.4	100.0	63.4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51. 10년 후 가계 경제생활 수준

단위: %

구 분		개선	유지	악화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35.4	49.8	14.8	100.0	55.60
연령	20~30대	58.5	36.6	4.9	100.0	65.45
	40대	41.5	49.2	9.3	100.0	58.26
	50대	26.8	55.3	17.9	100.0	51.83
	60대 이상	16.9	57.4	25.7	100.0	47.79
직업	농림어업	19.5	56.9	23.6	100.0	48.98
	비 농림어업	40.6	47.5	11.9	100.0	57.7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52. 소득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구 분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25.4	34.2	40.4	100.0	45.25
연령	20~30대	27.6	32.5	39.8	100.0	45.73
	40대	31.4	37.3	31.4	100.0	49.58
	50대	30.1	34.1	35.8	100.0	47.56
	60대 이상	14.0	33.1	52.9	100.0	38.97
직업	농림어업	19.5	42.3	38.2	100.0	44.92
	비 농림어업	27.3	31.6	41.1	100.0	45.3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53. 노후에 노동 희망 여부

단위: %

구 분		예	아니오	합계	평균(나이) <sup>a</sup>
전 체		60.2	39.8	100.0	71.61
연령	20~30대	47.2	52.8	100.0	71.45
	40대	63.6	36.4	100.0	70.59
	50대	65.9	34.1	100.0	70.90
	60대 이상	64.0	36.0	100.0	73.30
직업	농림어업	67.5	32.5	100.0	72.55
	비 농림어업	57.8	42.2	100.0	71.27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54. 노후에 노동 희망 이유

단위: %

구 분		소득 얻기 위해	건강 을 위해	여가 시간 을 활용 하기 위해	자기 발전 을 위해	이 웃 나 다 른 사 람 들 을 위 해	자 녀 에 게 이 기 되 고 싶 어 서	심 심 해 서	좋 아 하 는 일 을 평 생 하 고 싶 어 서	농 촌 노 인 들 이 하 는 것 보 다 하 고 싶 어 서	모 름 · 무 응 답
전 체		54.2	20.3	11.3	11.0	1.7	0.3	0.3	0.3	0.3	0.3
연령	20~30대	43.1	13.8	19.0	19.0	1.7	0.0	0.0	1.7	1.7	0.0
	40대	53.3	16.0	16.0	12.0	2.7	0.0	0.0	0.0	0.0	0.0
	50대	55.6	24.7	6.2	11.1	1.2	1.2	0.0	0.0	0.0	0.0
	60대 이상	60.9	24.1	6.9	4.6	1.1	0.0	1.1	0.0	0.0	1.1
직업	농림어업	62.7	28.9	3.6	3.6	1.2	0.0	0.0	0.0	0.0	0.0
	비 농림어업	50.9	17.0	14.2	13.8	1.8	0.5	0.5	0.5	0.5	0.5

부표 55. 노후에 노동 비희망 이유

단위: %

구 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	육체적으로 무뎠을 것 같아서	소득충분하여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집안일을 거가 족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내마음에 드는 일자가 없을 것 같아서	노년즐거고 싶어서	여가를 생활하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	사회장제도가 확대되어서
전 체	30.2	22.6	21.1	9.5	5.5	3.5	2.5	2.0	1.0	1.0	0.5	0.5
연령	20~30대	38.5	4.6	21.5	13.8	1.5	3.1	6.2	3.1	3.1	1.5	0.0
	40대	44.2	11.6	25.6	9.3	2.3	7.0	0.0	0.0	0.0	0.0	0.0
	50대	26.2	40.5	14.3	2.4	7.1	2.4	2.4	2.4	0.0	0.0	2.4
	60대 이상	10.2	40.8	22.4	10.2	12.2	2.0	0.0	2.0	0.0	0.0	0.0
직업	농림어업	30.0	25.0	27.5	10.0	2.5	0.0	0.0	2.5	0.0	2.5	0.0
	비 농림어업	30.2	22.0	19.5	9.4	6.3	4.4	3.1	1.9	1.3	0.6	0.6

부표 56. 노후소득 안정적 보장 시 근로소득 활동 중단 시기

단위: %

구 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라도 근로소득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합계	
전 체	25.0	30.8	29.6	6.6	8.0	100.0	
연령	20~30 대	42.3	27.6	18.7	5.7	5.7	100.0
	40대	26.3	35.6	28.8	1.7	7.6	100.0
	50대	21.1	32.5	38.2	4.1	4.1	100.0
	60대 이상	11.8	27.9	32.4	14.0	14.0	100.0
직업	농림어업	18.7	22.8	38.2	5.7	14.6	100.0
	비 농림어업	27.1	33.4	26.8	6.9	5.8	100.0

부표 57. 일자리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구 분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합계	평균
전	체	24.4	37.4	38.2	100.0	45.10
연령	20~30대	20.3	36.6	43.1	100.0	42.68
	40대	36.4	42.4	21.2	100.0	53.39
	50대	26.0	39.8	34.1	100.0	47.56
	60대 이상	16.2	31.6	52.2	100.0	37.87
직업	농림어업	19.5	50.4	30.1	100.0	46.34
	비 농림어업	26.0	33.2	40.8	100.0	44.69

부표 58. 여가 및 문화 활동 여부 : 취미활동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36.8	63.2	100.0
연령	20~30대	44.7	55.3	100.0
	40대	34.7	65.3	100.0
	50대	42.3	57.7	100.0
	60대 이상	26.5	73.5	100.0
직업	농림어업	30.1	69.9	100.0
	비 농림어업	39.0	61.0	100.0

부표 59. 여가 및 문화 활동 여부 : 자원봉사활동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13.6	86.4	100.0
연령	20~30대	15.4	84.6	100.0
	40대	17.8	82.2	100.0
	50대	14.6	85.4	100.0
	60대 이상	7.4	92.6	100.0
직업	농림어업	5.7	94.3	100.0
	비 농림어업	16.2	83.8	100.0

부표 60. 여가 및 문화 활동 여부 : 종교활동·신앙생활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26.8	73.2	100.0
연령	20~30대	21.1	78.9	100.0
	40대	23.7	76.3	100.0
	50대	33.3	66.7	100.0
	60대 이상	28.7	71.3	100.0
직업	농림어업	17.9	82.1	100.0
	비 농림어업	29.7	70.3	100.0

부표 61. 여가 및 문화 활동 여부 : 친목활동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합계
전	체	62.4	37.6	100.0
연령	20~30대	53.7	46.3	100.0
	40대	68.6	31.4	100.0
	50대	69.9	30.1	100.0
	60대 이상	58.1	41.9	100.0
직업	농림어업	58.5	41.5	100.0
	비 농림어업	63.7	36.3	100.0

부표 62.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 : 취미활동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69.0	31.0	100.0
연령	20~30대	82.9	17.1	100.0
	40대	72.9	27.1	100.0
	50대	73.2	26.8	100.0
	60대 이상	49.3	50.7	100.0
직업	농림어업	71.5	28.5	100.0
	비 농림어업	68.2	31.8	100.0

부표 63.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 : 자원봉사활동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43.2	56.8	100.0
연령	20~30대	50.4	49.6	100.0
	40대	48.3	51.7	100.0
	50대	50.4	49.6	100.0
	60대 이상	25.7	74.3	100.0
직업	농림어업	39.0	61.0	100.0
	비 농림어업	44.6	55.4	100.0

부표 64.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 : 종교활동·신앙생활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41.2	58.8	100.0
연령	20~30대	35.0	65.0	100.0
	40대	42.4	57.6	100.0
	50대	48.8	51.2	100.0
	60대 이상	39.0	61.0	100.0
직업	농림어업	34.1	65.9	100.0
	비 농림어업	43.5	56.5	100.0

부표 65.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 : 친목활동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71.4	28.6	100.0
연령	20~30대	74.0	26.0	100.0
	40대	78.8	21.2	100.0
	50대	73.2	26.8	100.0
	60대 이상	61.0	39.0	100.0
직업	농림어업	70.7	29.3	100.0
	비 농림어업	71.6	28.4	100.0

부표 66. 참여 희망 여가·문화 활동 : 자기개발 활동

단위: %

구 분		희망	희망 안함	합계
전	체	47.0	53.0	100.0
연령	20~30대	62.6	37.4	100.0
	40대	54.2	45.8	100.0
	50대	50.4	49.6	100.0
	60대 이상	23.5	76.5	100.0
직업	농림어업	27.6	72.4	100.0
	비 농림어업	53.3	46.7	100.0

부표 67. 여가·문화활동 참여 시 주된 장애요인

단위: %

구 분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문화·여가활동의 종류 부족	관심 부족	정보 부족	교통 불편	건강
전	체	34.0	25.6	13.0	12.6	9.4	4.2	1.2
연령	20~30대	43.1	15.4	15.4	10.6	10.6	4.9	0.0
	40대	45.8	22.0	15.3	5.9	11.0	0.0	0.0
	50대	35.8	26.8	11.4	12.2	8.1	3.3	2.4
	60대 이상	14.0	36.8	10.3	20.6	8.1	8.1	2.2
직업	농림어업	29.3	21.1	16.3	16.3	8.9	7.3	0.8
	비 농림어업	35.5	27.1	11.9	11.4	9.5	3.2	1.3

부표 68. 여가·문화활동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 정도

단위: %

구 분		준비함	보통	준비 못함	합계	평균 <sup>a</sup>
전	체	16.0	31.8	52.2	100.0	38.45
연령	20~30대	15.4	35.0	49.6	100.0	39.23
	40대	20.3	33.1	46.6	100.0	42.80
	50대	18.7	37.4	43.9	100.0	41.26
	60대 이상	10.3	22.8	66.9	100.0	31.43
직업	농림어업	12.2	34.1	53.7	100.0	37.20
	비 농림어업	17.2	31.0	51.7	100.0	38.86

a: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부표 69.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1순위

단위: %

구 분		건강 관리 교육	경 계 교육	노 후 준 비 교육	여 가 및 문 화 교육	취 업 및 직 업 교육	컴 퓨 터 교육	일 반 교 양 교육	자 원 사 교육	한 글 교육	농 기 계 교육	대 학 교 육 이 상 의 고 등 교 육	귀 향 대 영 농 교 육	모 름 · 무 응 답	합 계
전	체	58.6	21.2	6.0	5.8	4.2	1.6	1.2	0.4	0.2	0.2	0.2	0.2	0.2	100.0
연령	20~30대	48.0	25.2	8.1	8.1	5.7	1.6	2.4	0.8	0.0	0.0	0.0	0.0	0.0	100.0
	40대	52.5	22.9	5.9	10.2	3.4	2.5	0.0	0.0	0.0	0.8	0.0	0.8	0.8	100.0
	50대	65.0	20.3	3.3	1.6	4.9	1.6	1.6	0.0	0.8	0.0	0.8	0.0	0.0	100.0
	60대 이상	67.6	16.9	6.6	3.7	2.9	0.7	0.7	0.7	0.0	0.0	0.0	0.0	0.0	100.0
직업	농림어업	61.0	13.8	8.9	3.3	6.5	4.9	0.8	0.0	0.8	0.0	0.0	0.0	0.0	100.0
	비 농림어업	57.8	23.6	5.0	6.6	3.4	0.5	1.3	0.5	0.0	0.3	0.3	0.3	0.3	100.0

부표 70.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건강 관리 교육	경 계 교육	여 가 및 문 화 교육	노 후 준 비 교육	취 업 및 직 업 교육	일 반 교 양 교육	컴 퓨 터 교육	자 원 사 교육	한 글 교육	대 학 교 육 이 상 의 고 등 교 육	운 전 교 육	농 기 계 교육	귀 향 대 영 농 교 육	모 름 무 응 답
전	체	77.2	41.8	27.8	25.0	13.8	4.8	4.2	2.0	0.6	0.6	0.4	0.4	0.2	0.2
연령	20~30대	68.3	42.3	29.3	26.0	16.3	8.1	6.5	0.8	0.0	1.6	0.0	0.0	0.0	0.0
	40대	73.7	47.5	27.1	18.6	16.9	2.5	5.1	1.7	0.8	0.0	0.0	1.7	0.8	0.8
	50대	83.7	38.2	24.4	28.5	11.4	3.3	4.1	3.3	0.8	0.8	1.6	0.0	0.0	0.0
	60대 이상	82.4	39.7	30.1	26.5	11.0	5.1	1.5	2.2	0.7	0.0	0.0	0.0	0.0	0.0
직업	농림어업	82.1	28.5	27.6	29.3	12.2	6.5	8.9	3.3	0.8	0.0	0.0	0.0	0.0	0.0
	비 농림어업	75.6	46.2	27.9	23.6	14.3	4.2	2.7	1.6	0.5	0.8	0.5	0.5	0.3	0.3

부표 71. 선호하는 노후 대비 교육 방식

단위: %

구 분	상담 서비스	방문 교육	집합 교육	학습 조직 (동아리)	인터넷 및 방송	집에서도 혼자 받을 수 있다	
전 체	29.8	26.2	21.4	13.4	9.0	0.2	
연령	20~30대	24.4	16.3	16.3	22.8	20.3	0.0
	40대	33.9	22.9	22.0	12.7	8.5	0.0
	50대	33.3	30.1	22.8	8.1	5.7	0.0
	60대 이상	27.9	34.6	24.3	10.3	2.2	0.7
직업	농림어업	27.6	35.0	26.0	9.8	1.6	0.0
	비 농림어업	30.5	23.3	19.9	14.6	11.4	0.3

부표 72. 100세 시대 맞이 정부의 시급추진 정책 1순위

단위: %

구 분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호 및 기요서비스	일하고 싶은 노을 위한 고용 기회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가·문화 활동 지원	평생 교육 및 취업 교육	노인 생활하기 편한 교통·주거 환경 조성	노후 준비 관련 위상 서비스 제공	모름·무응답	합계	
전 체	56.4	17.6	11.8	6.0	5.0	2.6	0.4	0.2	100.0	
연령	20~30대	55.3	14.6	11.4	10.6	4.9	2.4	0.8	0.0	100.0
	40대	51.7	19.5	15.3	6.8	5.9	0.8	0.0	0.0	100.0
	50대	61.8	17.1	10.6	0.8	5.7	3.3	0.0	0.8	100.0
	60대 이상	56.6	19.1	10.3	5.9	3.7	3.7	0.7	0.0	100.0
직업	농림어업	58.5	9.8	10.6	7.3	8.9	3.3	1.6	0.0	100.0
	비 농림어업	55.7	20.2	12.2	5.6	3.7	2.4	0.0	0.3	100.0

부표 73. 100세 시대 맞이 정부의 시급추진 정책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기본 적생활 유지 위한 노후 소득 보장	건강 보호 및 기요 양서 비스	일하 고 싶 은 노 을 위 한 고 용 기 회 확 대	활기 찬 노 후 생 활 위 한 여 가 · 문 화 활 동 지 원	평 생 재 업 교육 · 평 교 및 취 업 교 육	노 인 생 활 하 기 편 안 한 교 통 · 주 거 환 경 조 성	노 후 준 비 마 련 위 상 담 서 비스 공 제	젊 은 사 들 의 자 리 창 출	모 름 · 무 응 답
전	체	74.2	49.6	32.2	19.8	9.8	9.0	3.6	0.2	0.2
연령	20~30 대	71.5	43.9	31.7	23.6	12.2	10.6	4.9	0.0	0.0
	40대	77.1	48.3	36.4	22.0	11.0	1.7	0.8	0.8	0.0
	50대	78.0	51.2	30.9	17.1	8.1	9.8	2.4	0.0	0.8
	60대 이상	70.6	54.4	30.1	16.9	8.1	13.2	5.9	0.0	0.0
직업	농림어업	74.0	43.1	39.8	15.4	13.0	8.9	4.9	0.0	0.0
	비 농림어업	74.3	51.7	29.7	21.2	8.8	9.0	3.2	0.3	0.3

## 참고 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집.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종합).
- 김정호 외. 2007.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지도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규 외.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태완 외. 2009.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진. 2010. 「농촌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김휴종 외. 2005.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문화적 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 박대식, 최경환.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a.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b.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c.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명호. 2011. “100세 시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Pp. 45~85.
- 박상철. 2011. “당당한 노화와 기능적 장수의 시대를 기다리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자료. Pp. 11~44.
- 박성재 외. 2010.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외. 2007. 「농촌의 미래 모습, “농촌공간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 손유미. 2011. “공공부문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와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

-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Pp. 5~19.
- 신윤정 외. 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 2011.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11-05-01.
- 이견직 외.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 20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의 부문별 일자리 창출 대책」. Pp. 23~31.
- 장혜경, 김은지. 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젠더리뷰」 21: 16~25.
- 정경희 외. 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훈. 2011. “100세 시대 함께하는 가족의 삶: 세대 간 통합 주거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1: 42~48.
- 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병호 외. 2006.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1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통계청. 2008.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 한국리서치. 2010.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매일경제·mbn.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협재정 전망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2010. 「2010년도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결과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 한석호 외. 2010.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석표. 2009.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길식 외. 2011.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EU. 2009. 「The 2009 Ageing Report」.

McDonald, Ann. 2010.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Cambridge: Polity Press.

OECD. 200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ctive Ageing」.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

C2011-51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발 행 2011. 1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